KALPAK

www.kalpak.co.kr

한진관광

서울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 빌딩 6층 KALPAK
6th Floor, Korean Air Bldg., 117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04515

TEL 02-726-5800 FAX 02-771-9084

KALPAK CLASS

2019. SUMMER. vol 60

Croatia, Slovenia, Montenegro / Travel with a theme

KAL PAK CLASS

SEE THE UNSEEN

2019 SUMMER

—
SPECIAL THEME
A TRAVEL DIARY FROM
THE RED-ROOFED TOWNS

—
EXPERIENCE
ONE VERY SPECIAL
SUMMER NIGHT

—
STYLE
GETAWAY ESSENTIALS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BOSTON

가장 미국다운 미국, 보스턴을 만나다

대한항공 미국 보스턴 주 5회 운항
델타항공과 함께 미주 290여개 도시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CONTENTS

PROLOGUE

06
EDITOR'S LETTER
플리트비체에서 부친 편지

08
CITYSCAPE
가장 미국다운 도시, 보스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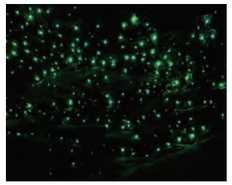
TRAVEL & CHALLENGE

12
WORLD EXCLUSIVE
정글, 사막, 알래스카의
기상 천외한 숙소들

16
PHOTO ESSAY
어느 여행작가의
'플라이투더스카이'

20
SPECIAL
A TRAVEL DIARY FROM THE RED-ROOFED TOWNS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9일간의 아름다운 대장정

64
EXPERIENCE
낮보다 특별한 여름 밤,
세계의 나이트 투어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787.koreanair.com

드림라이너 787
꿈의 비행을 만나보세요.

KOREAN AIR

꿈의 비행
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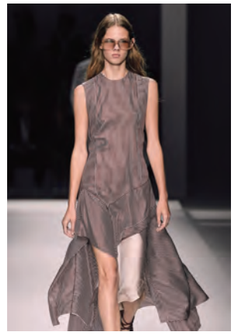
대한항공에서 만나는
드림라이너787

대한항공에서 펼쳐지는 드림라이너787 꿈의 비행.
미래의 기술이 만들어낸 편안함과 새로운 기내환경을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경험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IFE & CULTURE

68
STYLE
완벽한 겟어웨이를 위한
리조트 에센셜



74
DESTINATION
영화 속 힐링 천국 '발리'

72
ZOOM
불과 얼음의 황홀한 만남, 무라노글라스

EPILOGUE & KALPAK COLLECTION

76
TRAVELOGUE
〈알쓸신잡〉 김상욱 교수의
트래블로그

82
KALPAK COLLECTION
2019 KALPAK 여름 상품 안내

KALPAK, SEE THE UNSEEN
Summer 2019 Vol.60 / Quarterly Magazine

KALPAK CLASS was registered as a quarterly magazine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n July 11, 2005.
Registration No. Seoul Jung, Ba 00198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contents of this magazine may be reproduc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HanJin Travel Service Co.,Ltd. & HanaroAdcom.
Opinions in this magazine belong to the writers and not necessarily endorsed by HanJin Travel Service Co., Ltd. & HanaroAdcom.

KALPAK CLASS is published quarterly by HanJin Travel Service Co., Ltd.
6th Floor, Korean Air Bldg., 117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04515
Tel. +82.2.726.5800 Fax. +82.2.771.9084 www.kalpak.co.kr

Publisher Park In-chai
Editorial Board Ahn Kyo-wook, Jung In-sook, Kim Jung-ho, Jung Yeo-jin

Editorial, Creative & Printing Division / HanaroAdcom
5th Floor, Sando Bldg., 8, Dosan-daero 33-gil, Gangnam-gu, Seoul, Korea 06026
Tel. +82.2.3443.8005 Fax. +82.2.3443.0021 www.hanaroad.com

Managing Director Seol Myoung-sung
Editor in Chief Lim Ji-young
Editor Lee Hyun-hwa, Kim Hong-joo, Han Yu-ri
Art Director Lee Yun-jung
Photographer Lee Yong-ki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CROATIA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 지중해를 건너 또 다른 크로아티아를 만나다

대한항공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주 3회 운항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EDITOR'S LETTER

악마의 정원,
혹은
요정의 호수

THE SECRET OF BEAUTY

한때 '악마의 정원'으로 불리던 숲이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곳에 곡식과 동물이 말라 죽을 만큼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어느 날 검은 여왕이 나타나 천둥과 번개를 계곡에 보내 며칠 동안 비를 뿌렸습니다. 말라 죽어가던 계곡의 생명체들은 초록의 생명을 되찾았고 덕분에 지금의 호수와 폭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플리트비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비경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전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창한 숲 속에 16개의 에메랄드빛 호수가 계단식으로 나열되어 날실처럼 폭포를 쏟아내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 지금은 '요정의 호수'라는 더 없이 동화적인 수식이 따라 붙습니다. 궂은 날 보면 짙푸른 녹음이 사람의 발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 무섭지만, 맑은 날 보면 석회질 호수가 영롱한 프리즘을 통과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는 곳. 그래서 악마의 정원에서 요정의 호수로 불리기도 하는 플리트비체. 무엇이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길가에 핀 들풀도 잡초로 보면 흔한 잡초일 뿐이지만 꽃으로 보면 소중한 꽃으로 보이듯 말입니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아름다움에 눈뜨는 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난티 코브,
더 이상 외국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ANANTI COVE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1 T. 1877 8448 www.theananti.com

A real America in America

미국 속의 진짜 미국, 보스턴을 가다

BOSTON

'미국답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보스턴에 그 해답이 있다. 아이비리그 타운, 미국 독립 혁명의 무대, 뉴잉글랜드의 수도, 미국에서 가장 '미국다운' 곳으로 꼽히는 보스턴의 숨은 매력 탐방기.

에디터 한유리

유서 깊은 브라운 스톤의 도시

우리에게 보스턴은 아이비리그와 등가 공식이 성립하는 도시다. '교육의 도시'라는 상징적 이미지가 그만큼 압도적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보스턴 시내 및 주변 지역에는 하버드 대학부터 MIT, 보스턴 대학, 버클리 음대, 보스턴 칼리지, 웰즐리 대학 등 많은 단과 및 종합 대학들이 포진해 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의 주도이자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인 보스턴은 지루한 학술적 별명보다 훨씬 재미있는 도시다. 높은 생활물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꼽는 곳, 매년 2천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 보스턴에는 대체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

보스턴은 1630년 영국의 청교도 식민지 개척자들이 반도를 세우고, 18세기 후반 보스턴 학살, 보스턴 차 사건 등 미국 독립 혁명의 중요한 사건의 무대가 된 곳이다.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인 보스턴 라틴 스쿨이 세워졌는가 하면 미국 최초의 지하철망이 생긴 곳이기도 하다. 찰스 강(Charles River)과 보스턴 만(Boston Bay) 사이에 위치한 보스턴은 17~18세기 초기 미국 역사의 궤적을 생생히 보여주는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자랑한다. '브라운 스톤'이라는 별명이 여기에서 유래했고 덕분에 미국의 여타 대도시들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지니게 되었다.

1. 유럽의 구도심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러운 비콘힐 2. 미국 역사의 상징적 존재인 조지워싱턴의 동상
3. 신구의 대비가 두드러지는 코플리 광장의 올드 사우스 교회 4. 보스턴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아름다운 관광지인 퍼블릭 가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만큼, 보스턴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 넘쳐 난다. 미국 최초의 공원인 보스턴 커먼을 비롯해 미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들을 보고 나면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이라 불리는 역사탐방로의 붉은 벽돌 건물들은 외려 신식으로 느껴질 정도다. 보스턴에 거주했던 해방 흑인들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블랙 헤리티지 트레일을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비콘 힐의 주택가와 찰스 스트리트로 연결된다.

노스 엔드(North End)는 보스턴의 시발점으로 관광 명소가 몰려있는 곳이다. 길들이 매우 좁고 벽돌 건물들이 조밀하게 붙어 있어 유럽의 구도심 느낌이 난다. 보스턴 사람들이 '다운타운'이라 부르는 다운타운 크로싱(Downtown Crossing)은 보스턴 커먼 공원과 올드타운, 메이시 백화점 등 상점가가 만나는 교차지점이다. 보스턴 커먼에서 시위나 문화 행사, 마라톤이 있는 날이면 '아메리칸 파워'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보스턴 레드삭스 스타디움이 있는 펜웨이(Fenway)나 보스턴으로 취급되는 이웃동네 캠브리지, 영화 〈타운〉의 배경이 된 찰스타운(Charles Town)도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 보스턴은 애드거 앨런 포의 고향이며, 하버드 대학 근처에는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의 집이 남아있다. 근교에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의 배경이 된 월든 호수도 있다. 세련된 미국과 정겨운 미국이 공존하는 곳, 보스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진짜 미국'이 있다.

DO NOT MISS IN BOSTON

보스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 즐거움

보스턴 수상 택시
(City Water Taxi)

보스턴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수단 중 단연 최고는 찰스 타운과 보스턴 시내를 잇는 수상 택시다. 시원한 물줄기를 가로지르며 만끽하는 보스턴의 도시 경관이 지울 수 없는 파노라마로 새겨질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하버드는 단순한 대학교가 아니다. 세계적인 명소이자 미국 명문 교육의 아이콘이다. 신발을 만지고 소원을 빌면 자녀가 대학에 붙는다는 존 하버드 동상부터 아넨버그 홀의 호그와트 연회장까지 구석구석 둘러보자.

파뉴 홀 마켓플레이스
(Faneuil Hall Marketplace)

보스턴 여행에 에너지가 2% 부족하다면? 파뉴 홀 마켓플레이스로 발길을 돌릴 것. 퀸시 마켓을 비롯한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즐비하다. 흥겨운 거리 공연은 에너지를 100% 충전해준다.

퍼블릭 가든 스완 보트
(Swan Boat at Public Garden)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공원. 보스턴의 시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곳의 명물인 스완 보트를 타고 퍼블릭 가든을 유영하다 보면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비록 역사는 짧지만,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놓고 볼 때 보스턴에는 꽤 괜찮은 미술관들이 있다.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도 그 중 하나. 베네치아 궁전에서 영감을 얻은 안마당은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유니언 오이스터 하우스
(Union Oyster House)

가장 오래된 도시의 가장 오래된 해산물 요리 전문점. 1826년에 문을 열어 오늘날까지 성업중이다. 케네디 클랜, 다니엘 웹스터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이곳에서 정찬을 즐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World Exclusive

AN EXTRAORDINARY

SLEEP

세상은 넓고 잘 곳은 많다. 사막 한가운데, 원시림 너머, 재래시장 한복판, 빙하를 배경으로 우뚝 선 기상천외한 럭셔리 숙소를 모아봤다.

에디터 이현화 / **자료제공** 각 호텔 및 리조트들

Hotel Villa Honegg, SWITZ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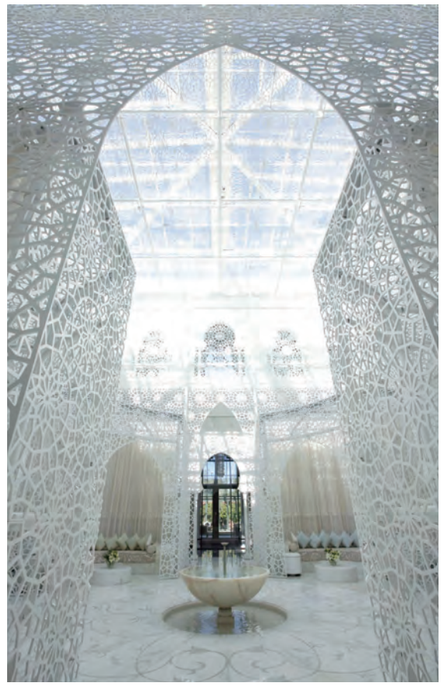
해발 914m 루체른의 산꼭대기에 5성급 부티크 호텔이 있다면? 1905년에 지어진 이 고풍스러운 '호텔 빌라 호네그'는 중앙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야외 수영장과 파노라마 전망의 산맥으로 이미 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있다. 객실은 단 23개.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며 영화 세트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던 이유서 깊은 호텔에서 최첨단 편의시설과 현지에서 조달한 제철 재료로 만든 웰빙 만찬, 꿈결 같은 전망의 34℃의 수영장, 핀란드식 사우나를 만끽해보자. 스파에서 페보니아(Pevonia), 에씨(Essie), 글로미네랄(Glominerals)의 제품도 판매하니 마니아라면 놓치지 말 것. 주말과 여름휴가 기간인 6월~8월은 2박 이상부터 예약할 수 있다.

+41 (0)41 618 32 00
https://villa-honegg.ch/en

Four Seasons Tented Camp Golden Triangle, THAILAND

'포시즌스 텐티드 캠프 골든 트라이앵글'은 모험가의 DNA를 제대로 자극한다. 태국 치앙라이국제공항에서 85㎞를 1시간 30분가량 차로 이동한 뒤, 다시 롱테일보트를 타고 메콩강을 가로질러야만 입장이 허락된다. 두꺼운 아이보리색 텐트 안에 들어서면 사파리 스타일로 꾸며진 실내에 태국 북부 스타일의 수공예 가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메콩강을 경계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가 나뉘는 국경지대다. 이곳에서 당신은 학대로부터 구조된 20여 마리의 코끼리와 교감하거나, 보태니컬 전문가와 대나무 정글을 산책하거나, 19세기 탐험가처럼 루악강을 항해하며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66 2 207 8900
www.fourseasons.com/goldentriangle



Royal Mansour Marrakech, MOROCCO

"Where dreams live and emotions are born." 럭셔리의 끝을 보고 싶다면 '로열 만수르 마라케시'를 추천한다. 루프트톱 테라스와 프라이빗 풀, 내부 정원, 거실, 식당이 각각 딸린 53개의 '리아드(Riads)'는 모로코 전통 주택 양식을 고스란히 반영해 높은 담장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무어 스타일 모자이크와 스테인드글라스, 은세공으로 마감한 실내 장식과 벨벳과 실크를 덧댄 가구, 분수와 재스민꽃과 올리브나무가 있는 정원,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책임지는 레스토랑, 하맘(Hammam)을 갖춘 스파…. 현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가 1500명이 넘는 장인을 모아 4년 넘게 지은 데다, 모로코 국빈이 묵는 곳이라니 호텔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부를 만하다.

+212 (0) 529 80 80 80
www.royalmansour.com

Fogo Island Inn, CANADA

도시에만 머물면 좌표를 잃기 십상. 이럴 땐 지구에서 가장 야생적이고 강렬한 바다를 찾아야 한다. 캐나다 포고 아일랜드(Fogo island)같은. 현대인의 무감각한 획일성에서 벗어나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고자 만들어진 '포고 아일랜드 인'은 뉴펀들랜드 앞바다에 무심히 세워져 있다. 객실 내 유일한 플라스틱은 전화기 뿐. 사방이 창이라 어디서든 멋진 야생의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나무와 모직, 면, 리넨 등 천연 재료만을 고집한 실내에서는 일종의 고집이 느껴진다. 고등어를 낚거나, 제철 베리와 버섯을 수확하거나, 캠프파이어에서 민속음악을 감상하면서 잠시 캐나다에서 가장 인류가 오랫동안 거주해온 포고섬의 원주민이 되어보자. 갠더(Gander)국제공항에서 육로와 페리로 45분 정도 소요된다.

+1 709 658 3444
https://fogoislandinn.ca

Al Maha Resort, UAE

자발적인 고독을 누리기에 '알 마하 리조트'만한 곳이 더 있을까. 두바이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솟은 이곳은 베두인 캠프에서 영감을 얻었다기엔 지나치게 화려하다. 37개의 스위트룸에서 늘어지게 쉬다가 붉은 모래를 바라보며 인피니티 풀에 몸을 담그는 호사는 배덕감마저 들 지경. 그러나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개별 가이드와 사막을 산책하고, 아라비아의 로렌스처럼 낙타 트레킹이나 승마도 할 수 있는 럭셔리 리조트지만, 국제지속관광위원회(GSTC)가 인증한 '에코 럭셔리'를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 두바이사막보존보호구역(DDCR)에 위치해 진귀한 동식물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막 영양인 아라비아오릭스가 특히 유명하다. 만 10세 이상부터 투숙 가능.

+971 4 832 9900
www.al-maha.com

FLY TO THE SKY

글. 사진 김정원 (여행 작가. 〈저스트고 시리즈〉, 〈여자여행백서〉 저자)

순간이었다. 하늘로 날아오른 건. 프로페셔널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는 여행자의 두려움을 1초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터키 페티예 바바다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서두른다. 태엽장치 돌리듯 일사분란하게 초보 비행자의 몸에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채우고 머리에 헬멧을 씌우더니 곧바로 "Run!", 산 아래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게 만든다. 두려움조차 느낄 겨를 없이 이미 하늘을 날고 있었다. 마치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바람이 머릿결을 날리고 구름이 뺨을 스친다. 육중하다 여겼던 몸은 이곳에서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 하늘이라는 거대한 품속에서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한 어린 아이가 되고 만다. 솜사탕 같은 구름이 걷히자 발밑으로 푸른 빛깔 아름다운 윌뤼데니스 해안이 놓인다. 하늘과 구름, 바다 사이엔 그 어떤 방해 막도 없다. 오밀조밀 작은 성냥갑처럼 보이던 집들은 점점 커져가지만 여행자의 마음은 하늘로 더 높이, 더 높이 치솟는다.

The new C-Class with Mercedes me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Coupé.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4MATIC Coupé (배기량: 1,950cc, 공차중량: 1,755kg, 자동9단), 복합연비: 14.2km/ℓ (도심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 CO_2 배출량: 134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be our
Muse
Inspired by KALPAK

열정과 감동으로 쓰는
나만의 시나리오, 뮤즈

체코에서는 직접 만든 유리잔에 여행의 기억을 듬뿍 담고
홍콩에서는 황홀한 야경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고
스페인에서는 마리아치의 기타 연주에 정열의 플라멩코를 추는 거야

meet your
Muse
Inspired by KALPAK

설렘과 낭만이 가득한
나만의 드라마, 뮤즈

프랑스에서는 클래식카로 낭만적인 드라이브를 즐기고
일본에서는 유카타와 함께 그림 같은 온천 마을을 느리게 걷고
하와이에서는 에메랄드빛 파도의 리듬에 여유롭게 몸을 맡기지

한진관광 여행상담 Muse 프랑스, 체코, 스페인 02. 726. 5533~4 / Muse 하와이, 방콕, 홍콩, 도쿄 02. 726. 5535~6

Muse
Inspired by KALPAK

A TRAVEL DIARY FROM THE RED-ROOFED TOWNS

CROATIA, MONTENEGRO, AND SLOVENIA

빨간 지붕 마을에서 쓴
여행 일기

글 임지영 / 사진 이용기 / 취재협조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KALPAK이 제안하는

[4인 출발]
아드리아해의 럭셔리를 만나다
크로아티아 & 슬로베니아 9일

일정 자그레브 - 두브로브니크(2) - 스플리트(1) - 플리트비체국립공원/로빈(2) - 포르토로즈(1) - 블레드/류블랴나/오토쳇(1) - 자그레브 - 기내(1)

가격 ₩ 18,598,400~

문의 02-726-5709

KALPAK이 제안하는

[2인 출발]
발칸의 보석
크로아티아 + 몬테네그로 7일

일정 자그레브/두브로브니크(2)- 스베티스테판(3)/비엔나 - 기내(1)

가격 ₩ 13,098,400~

문의 02-726-5709

DAY 1

A DIFFERENT MORNING IN DUBROVNIK

1

2

Villa Dubrovnik
Vlaha Bukovca 6, Dubrovnik
Tel: +385 20 500 3001
www.villa-dubrovnik.hr/en

1.
아드리아해가 한 눈에
들어오는 빌라
두브로브니크의 테라스

2.
씨사이드의 한적함을
만끽할 수 있는
로프트 스위트룸

행복하고 싶다면 두브로브니크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빌라 두브로브니크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만 같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다. '행복하고 싶거든 두브로브니크로 가라!' 극작가 버나드 쇼의 극찬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아드리아해와 은빛 비늘을 입은 물결은 그렇게 눈이 부셨다. 푸른 바다의 감상에 젖어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 문을 여니 근사한 인룸(In-Room) 다이닝 테이블이 기다리고 있다. 갓 구워낸 빵에 시나몬 향이 그윽한 카푸치노와 신선한 과일 샐러드, 스파클링 와인까지 전날 체크한 조식 리스트 그대로였다.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줄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그래서 꼭 광고나 영화 속의 정지된 화면처럼 보이는 해변 테라스로 내려갔다. 저 멀리 두브로브니크 올드타운이 부유하듯 수면 위에 떠 있다. 시간을 거스른 중세의 성벽 도시 속으로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 옛날 베네치아인들이나 오스만 투르크의 상인들이 그러했듯.

붉은 지붕과 푸른 아드리아해가
회화적 대비를 이루는 두브로브니크

3

Piknik Dubrovnik
Old Town, Dubrovnik
Tel: +385 (0)98 1751 103
www.piknikdubrovnik.com

3.
스베티 야코브 해변에서
즐긴 딜럭스 피크닉

4.
올드포트의 전망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들

5.
크루즈가 시작되는 곳,
올드포트

6.
스베티 야코브 해변의 별장

고독마저도 감미로운 해변의 피크닉

크로아티아에 오기 일주일 전 미리 예약해둔 피크닉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피크닉 매니저' 알렉스와 올드 포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캐노피 때문일까. 한적할 걸로 예상했던 오전의 올드 포트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스트라이프 매트가 포함된 피크닉 백을 배낭처럼 둘러메고 로크룸(Loklum) 섬으로 가는 보트를 예약했다. 고립된 성, 그 성 안에 사는 공작새 등 신비로운 전설을 품은 녹색의 오아시스를 둘러보고 나와 정작 피크닉 백을 푼 곳은 올드 타운이 아주 아련하게 보이는 연인들의 은신처였다. 바다와 성을 모두 품은 스베티 야코브(Sveti Jakov) 해변만큼 피크닉이 잘 어울리는 장소는 없다. 딜럭스 피크닉 세트에는 대표적인 달마티아 요리인 문어 샐러드는 물론, 비현실적으로 예쁜 마카롱, 아드리아의 강렬한 태양만큼이나 농염한 샹그리아 과일주와 아이스박스에

6

담겨 시원해진 화이트 와인까지 들어있다. 피크닉 팩을 건네주며 알렉스는 말했다. "경치만 감상하지 말고 느긋한 시간을 음미해 보세요." 매트를 길게 깔고 모래 위에 누우니 올드 타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대로 전해졌다. 하늘에는 헤르만 헤세가 찬미했음직한 구름 조각이 양떼처럼 평화롭게 떠다녔다. 뚝 떼어 액자에 넣어두고 오래도록 보고 싶어질 만큼 근사한 피크닉이었다.

4

5

7

Kopun
Poljana Rudera Boskovica 7,
Dubrovnik
Tel: +385 (0)20 323 969
www.restaurantkopun.com

걸음걸음이 행복해지는 골목과 계단

스타리 그라드(Stari Grad) 올드 타운과 성벽 길을 걸으며 이 도시의 속살을 헤집어 보기로 했다. 영화에서처럼 스펙터클하게 고성을 따라 카약킹을 즐길까 하다가 그런 식으로 이 중세 도시를 탐험하는데 다음 순간 거부감이 일었다. 왠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만 같아서. 대신, 기념품도 구경하고 꽃도 보면서 반질반질해진 돌길과 성벽 길을 느린 걸음으로 걸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수세기 동안 정성 들여 가꾼 문화유산의 구시가는 전체 길이 1940미터의 성벽에 의해 요새 마냥 굳건히 보호되고 있었다. 성벽을 걷지 않았다면 두브로브니크를 보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성벽 위에 올라서니 두브로브니크의 붉은 지붕과 푸른 아드리아해가 회화적인 대비를 이루며 도시 전체를 매혹의 무대로 펼쳐 보이고 있다. 어째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곳을 애니메이션의 무대로 점 찍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시가의 동맥이나 다름없는 플라차 대로로 내려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약국이 있다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으로 향했다. 15세기에 만든 입구의 피에타 장식과 아담한 장미 정원이 눈길을 끄는 수도원의 약국에서 오래 전의 비법 그대로 제조한 장미 크림과 라벤더 크림을 구입했다. 대량 생산 시대에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화장품이라니, 그 자체로 소장의 이유는 충분하다. 스타리 그라드의 좁은 골목들로 발길을 돌리자 활기찬 플라차 대로를 거닐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미로처럼 얽힌 아이스크림 가게, 기념품 상점, 주얼리 상점, 레스토랑들이 색다른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꼭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으로 굽이 굽이 모퉁이를 돌아서니 길은 자연스럽게 카페 바 부자(Café Bar Buza)로 이어진다. 〈꽃보다 누나〉에 나오면서 '절벽 카페'로 유명해진 바로 그 카페다. 수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 카페는 이제 막 수평선 저 너머로 기울기 시작한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다. 찰칵찰칵. 절로 셔터를 부르는 장관이다. 크로아티아 최초의 왕 이름을 딴 '토미슬라브'를 한 병 주문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은 바다 한가운데로, 그리고 유리잔 속에 그대로 떨어져 잠이 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왕좌의 바다를 등지고 돌길을 더듬어 다시 올드타운 쪽으로 걸었다. 갈 때는 멀던 길이 올 때는 이상하게 가까웠다. 현지인에게 저녁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하니, 대성당 뒤의 코푼(Kopun)이라는 레스토랑을 권했다. 그가 가르쳐준 대로 로맨틱한 바로크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성 이그나시에 성당 맞은 편에 조그마한 정원을 갖춘 카페테리아 형태의 레스토랑이 아늑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16세기 두브로브니크의 유명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닭 요리를 주문했다. 턱시도를 멋지게 빼 입은 레스토랑 오너의 추천 메뉴이기도 했는데 오렌지와 꿀 소스가 육즙과 어우러지는 게 삼킬 때마다 감칠맛이 났다. 끊이질 않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파이어 같은 하늘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시간의 흐름이 야속한, 천천히 아껴보고 싶은 밤이다.

8

9

10

11

12

7. 낭만적인 가로등의 올드타운 골목
8. 전통을 재해석한 코푼(Kopun)의 닭 요리
9. 아슬아슬 절벽 위의 부자 카페 (Café Bar Buza)
10, 11 구경만으로도 즐거운 구시가의 상점들
12. 휴식조차 낭만이 되는 올드타운의 테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중세 성벽 도시 코토르

DAY 2

DRIVING THROUGH MONTENEGRO

1.
송아지로 요리한
몬테네그로 방식의 굴라쉬

2.
코토르만에서 바라본
아드리아의 피오르

검은 산들이 빚은 비경, 코토르(Kotor)

두브로브니크에서 차로 한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고 나니, 거기서부터는 몬테네그로란다. 야트막한 언덕들이 차츰 높아지더니 곧 이어 갑옷을 두른 듯 검은 바위 산들이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한다. 심연을 알 수 없는 깊은 협곡들이 이탈리아어로 '검은 산'을 뜻하는 몬테네그로에 입성했음을 알린다. 저 멀리 페라스트(Perast)가 물안개 속에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낸다. 나폴레옹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마을에 사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프랑스 병사가 여인이 폭격으로 숨지자 이곳에 남아 수도사가 되었다는 애절한 사연이 전해지는 곳이다. 아드리아해의 피오르라 불리는 코토르(Kotor)로 들어서자 가히 숨을 멎게 하는 비경이 펼쳐진다. 다섯 번의 대지진 속에서도 살아남아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채 도시답다. 신발끈을 조여 매고 거친 숨을 참으며 긴 성벽을 오르자 피오르 협곡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시인 바이런의 칭송처럼 '육지와 바다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 할 만했다. 부두로 내려오니 어부들이 갓 채취한 홍합을 노련한 손놀림으로 손질하고 있다. 아까 달리던 해안도로를 따라 좀 더 달려 보기로 했다. 검은 산의 마법을 따라가다 보면 왠지 지상에서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만날 것만 같다.

AMAN SVETI STEFAN
Sveti Stefan 85315, Montenegro
Tel: +382 33 420 000
www.aman.com/resorts/aman-sveti-stefan

3

3.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아만 스파
4.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코티지 욕실
5.
느긋한 오후를 즐길 수 있는
아드리아틱 스위트 라운지

4

5

스베티 스테판(Sveti Stefan), 푸른 황홀경의 섬

그렇게 아드리아해 연안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부드바, 그리고 스베티 스테판을 만났다. 섬 전체가 리조트나 다름없는 스베티 스테판의 하루는 24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곳에는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통해서나 만나곤 했던 초현실적인 '정지된 시간'이 존재한다. 원래 어부가 살던 조그만 마을이었던 스테판 섬은 티토 정부 시절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 지금의 화려하고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섬은 하나밖에 없는 길 덕분에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덕분에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와 캐서린 제타 존스 부부, 소피아 로렌, 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들이 틈날 때마다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볕 좋고 바람 시원한 오후, 빈티지한 요트의 데크 위에 비스듬히 누워 몬테네그로의 국보급 와인메이커인 고란 라데비치(Goran Radevic)가 완성한 브라낙(Vranac) 와인을 홀짝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요의 신이자 황홀경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도 된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에 휩싸인다. 꿈이라면 결코 깨고 싶지 않은 꿈이다.

푸른 바다 한 가운데 고고이 떠 있는 섬, 스베티 스테판.
그 섬에 자리한 아만 스베티 스테판은 때묻지 않은
몬테네그로 야생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DAY 3

THERE`S NO PLACE LIKE SPLIT

Hotel Park Split
Hatzeov perivoj 3, Split
Tel: +385 21 40 6400
www.hotelpark-split.hr

로마 황제를 매혹한 도시, 스플리트

"행정 수도는 자그레브지만, 관광 수도는 스플리트죠."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한 상인은 스플리트를 그렇게 표현했다. 스플리트의 첫 인상은 호텔 파크에서의 풍성한 조식으로 아로새겨졌다. 달마티아 지방은 손님 접대가 남다르다더니 테이블 곳곳에서 이 지방의 인심이 넘쳐나는 듯 했다. 전날 풀지 못한 여독을 가벼운 자쿠지 욕으로 풀고 호텔을 나와 로마 황제의 궁전이 있는 곳을 물으니 모두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바다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했다. 궁전은 정확히 자를 대고 그린 듯 일직선을 이루는 바다 앞에 위치해 있다. 바다 위에 촘촘히 늘어선 수백 척의 요트들이 다시 바다와 하늘을 양분하고 있는 모습은 기하학적이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궁전을 지었다. 황제가 절대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누리고 싶었을 만큼 스플리트의 아름다움은 강렬한 매혹이었다. 황제의 선견지명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2

3

Diocletian's Wine House
Redono d.o.o. Julija Nepota 4, Split
Tel: +385 (0)99 564 7111
https://diocletianswinehouse.com

1.
로마 황제가 스플리트에 반해 지은
디오클레티안 궁전
2.
호텔 파크의 테라스 자쿠지 풀
3.
바다 조망의 호텔 파크 인룸 다이닝
4.
스플리트 시내의 라피아
모자 가게
5.
디오클레티안 궁내에 있는
디오클레티안 와인하우스
6.
디오클레티안 와인하우스의
'테이스트 달마티아' 코스
7.
로마 병사 복장을 한
디오클레티안 궁전의 수문병

궁전에서 황녀처럼 즐긴 식도락

궁전 안에서 '로마 병사'들이 그 시대를 나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면, 궁전 앞 광장에서는 '스타리 파사르(Stari Pazar)'라 불리는 노천 시장이 도시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다. 손맛이 느껴지는 다양한 수공예품과 해변에서 입을 수 있는 옷과 모자, 장미, 수선화 등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들을 구경하다 라벤더 파우치를 하나 구입했다. 잠 못 드는 밤, 알싸한 향기 솔솔 나는 파우치를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청해도 좋을 것 같아서. 시장 구경까지 마치고 나니 발길은 절로 구시가의 좁은 골목으로 향했다. 어디선가 재즈 음악이 들려와 그레텔이 과자 집에 홀리듯 홀린 걸음으로 빨려 들어가니 '디오클레티안스 와인하우스(Diocletian's Wine House)'라는 멋진 석조 건물로 이어진다. 길을 잃으면 어떠랴. 스플리트의 모든 길은 디오클레티안 궁전으로 통하는 것을! 호기롭게 하우스만의 시그니처인 '테이스트 달마티아' 코스를 주문했다. 멋지게 수염을 기른 소믈리에가 치즈, 프로슈토, 케이퍼 쉬림프 등 달마티아 지방의 엄선된

4

델리카시와 함께 3종의 와인을 가져왔다. 코르출라 등 인근 섬의 포도원에서 제조된 100% 달마티아 와인으로, 트레이에 올려진 다양한 핑거 푸드와 아주 잘 어울렸다. 미처 몰랐던 식도락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코스였다. 'Taste Dalmatia'. 풍미가 깊고 새콤달콤한 이런 맛이 달마티아라면 평생 맛봐도 좋을 것 같다.

5

6

7

1.
흐바르 섬 내륙에는
프로방스 못지 않은 광활한
라벤더 밭이 펼쳐져 있다.

2.
미로 같은 흐바르의 골목길

3.
느긋한 흐바르 올드 포트 전경

4.
흐바르 특유의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이스크림 가게

DAY 4

HVAR ISLAND

FILLED WITH LAVENDER FLOWERS

라벤더 향기 가득한 섬, 흐바르

크로아티아에서 섬 여행은 빠질 수 없는 하이라이트다. 그래서 떠났다. 스플리트 항을 출발한 야드롤리냐호가 50분 남짓을 달려 우리를 내려놓은 곳은 라벤더 향기 가득한 흐바르 섬이었다. 흐바르 항에 도착해 발을 내디딘 흐바르 구도심에서는 마침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6성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다. 신축중인 호텔 뒤로 기원전 일리리아인들이 방어를 위해 세운 요새가 눈에 들어왔다. 둘은 어떤 조화를 이루게 될까? 요새는 역사의 흥망에 따라 폭발과 붕괴, 재건과 증축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흐바르인들이 이태리식으로 '피아자'라 부르는 스테파나 광장에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으로 오후의 노곤함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 이곳이 아니면 절대 맛보지 못할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라벤더는 어디까지나 '향'인 줄로만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진짜 라벤더 '맛'이 났다. 라벤더가 아로마테라피 뿐 아니라 푸드테라피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흐바르에서 7킬로미터쯤 더 들어가면 브루세라는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마을이 끝나는 도로 표지판 근처에는 엽서에서나 보던 보라색 라벤더 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흐바르의 전망도 잘 보인다. 토스카나나 프로방스가 부럽지 않은 진풍경이었다. 브루세의 라벤더는 6월 중순에서 말까지가 피크로, 6월 말이 되면 모두 잘라내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벨로 그라블(Velo Grablje) 마을 사람들은 라벤더의 추수가 끝나는 6월 말이면 라벤더 축제를 연다. 피고 지는 꽃들을 위해 축제를 열다니, 무척 낭만적인 작별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흐바르의 좁은 골목을 헤집고 들어가, 작지만 위대한 이 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윽하게 라벤더나 로즈마리 향을 풍길 것만 같은 사람들을 말이다.

아가베 레이스의 계승자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녀들

**실과 바늘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동요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고 했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뜨면 된다는 아가베 레이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레이스는
침묵 속의 극기를 통해 탄생했다.**

흔히 '레이스'하면 우리는 린넨이나 견사, 혹은 면사를 떠올린다. 보다 화려한 레이스에는 은사나 금사도 사용될 테지만 말이다. 그러나 베네딕트 수도원(Benedictine Convent)의 수녀들은 100년 넘게 아가베 선인장에서 채취한 섬유를 원사로 사용해 레이스를 떠 왔다. 이를 남다른 '스킬'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 뜨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레이스 니팅(lace knitting)은 예술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훨씬 더 가까웠다. 스무 살에 수도원에 들어와 아가베 레이스 뜨는 법을 배운 아나 수녀는 레이스 뜨기보다 실 짜기가 훨씬 어려운 과정이라고 한다. "실을 짜낼 준비가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먼저, 아가베 선인장에서 쓸 만한 줄기를 골라냅니다. 그 줄기를 잘라 길쭉한 얇은 실을 일정 두께로 세밀히 뽑아내지요. 실을 뽑을 때는 두께가 같도록 섬세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가베 레이스의 전통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현지 선원들이 테네리페에서 식물 섬유로 뜬 레이스를 흐바르로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녀들은 오랫동안 이를 연구했고 레이스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발견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만의 문화유산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태양을 중심에 놓는 패턴, 꽃을 상기시키는 패턴 등 수녀들은 새롭고 독특한 패턴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갔다. 아이디어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전통을 지키는 데에는 엄격하다. "건조한 북풍이 불 때는 뜨개질을 하지 않습니다. 레이스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대신 다습한 남풍이 불 때 뜨개질을 합니다. 그래야 레이스가 견고해지니까요."

아가베 레이스는 이제 흐바르의 상징으로 섬 전체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손바닥보다 작은 코스터 크기가 300유로 정도, 4~6인용 테이블보 크기의 레이스는 수천, 수만 유로를 호가한다. 인내와 침묵의 시간이 완성한 레이스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MEET

빨간 지붕 마을에 사는 사람들 #2

위대한 자연에 대한 오마주

주얼리 디자이너 Tanja Curin

흐바르 다운타운에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로 눈길을 끄는 아주 특별한 숍이 하나 있다. 〈보그 이탈리아〉도 주목한 이 숍의 주인 디자이너 타냐 추린에게 흐바르에 대해 그녀가 느끼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 물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의 휴가를 이곳에서 보낸
디자이너 타냐 추린은
흐바르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소우주로 꼽는다.

Tanja Curin Jewelry
Kroz Grodu 6, 21450, Hvar
Tel: +385 21 742 218

가장 궁금한 질문. 왜 자그레브가 아닌 흐바르 섬에 숍을 연 거죠?
흐바르는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어린 제게 집시의 피를 심어주신 분이죠. 휴가철이면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셨고, 덕분에 섬 전체가 제게는 놀이터였어요. 조개껍질이나 나뭇가지들을 주워다 팔찌, 목걸이 등을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얼리 디자이너로서의 DNA가 그때 잉태된 것 같아요. 당연히 제 숍은 흐바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흐바르야말로 제 아이덴티티니까요.

주얼리들이 하나같이 독특해요. 영감의 원천이 궁금합니다.
우리끼리 농담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타냐 추린은 젯세터들을 위한 주얼리가 아니라 '집세터(Gypsetter, 집시에 젯세터를 합친 개념)'들을 위한 주얼리라고. 저는 6개월 이상 한 곳에 머무는 일이 없습니다. 자이푸르에 살다가 비엔나에 살다가 다시 흐바르로 돌아오기도 하지요. 집시의 영혼으로 만나는 세상 모든 것들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흐바르 섬의 가장 큰 매력을 꼽는다면?
흐바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섬입니다. 올드타운은 물론이고, 스타리 그라드나 라벤더필드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연환경과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삶의 방식도 매력적이지만 예술을 대하는 태도는 존경스러울 정도지요. 흐바르보다 완벽한 소우주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흐바르는 작지만 매혹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섬이니까요.

1

미슐랭셰프 루돌프 스테판

DAY 5

A TASTY NIGHT IN SIBENIK

Pelegrini
Ul Jurja Dalmatinca 1, 22000, Šibenik
Tel: +385 22 213 701
http://pelegrini.hr/en/

1.
주방에서 요리 중인 펠레그리니 팀
2.
새롭게 해석한 문어 샐러드
3.
고소한 바다 향의 버터볼 소라
4.
그린 파프리카 소스를 곁들인
수비드 피시
5.
달마티아 지역의 전통 음식인
페카 스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즐긴 맛의 향연

크로아티아에는 총 3개의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다. 쉬베니크(Sibenik)의 펠레그리니(Pelegrini)는 지난해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하며 미슐랭 리스트에 새롭게 이름을 추가한 신성(新星)이다. 별점을 획득하기 이전에도 전통과 실험의 조화로 워낙 명성이 자자했던 레스토랑이었지만 말이다. 두브로브니크에서는 중세의 유적을, 스플리트에서는 로마의 궁전을 본 만큼 쉬베니크에서는 문화와 역사 대신 미식에 심취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낙점한 곳이 크로아티아의 3번째 미슐랭 레스토랑이 된 펠레그리니였다. 전

2

3

4

5

펠레그리니 레스토랑

화로 파이브(5) 디너 코스를 예약하고 쉬베니크로 향했다.
펠레그리니는 성당과 광장, 바다를 모두 품은 근사한 언덕에 자리잡고 있었다. 쉬베니크 토박이인 셰프 루돌프 스테판은 그의 '펠레그리니 팀'과 달마티아, 베네치아, 오스만, 오스트리아를 아우르는 독특한 메뉴들을 개발했다. 맛의 '천하통일'이랄까. 문어 샐러드부터 버터볼 소라, 그린 파프리카 소스를 곁들인 수비드 생선 요리, 이 지역의 전통 요리인 페카 스튜는 낯익은 듯 낯선 변주들이었다. 미각 체험을 극대화한 건 미슐랭 셰프가 지역의 와인 마스터와 손을 잡고 직접 개발한 와인들이었다. 산뜻한 맛의 스파클링 와인과 깊은 오크향의 화이트 와인이 쉴 새 없이 교차되며 강약 조절을 했다. 디저트로 나온 프룻 소르베는 훌륭한 정찬의 황홀한 마무리였다. 요는, 음식을 통해 깨우친 절제와 균형의 미덕이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내 싸우는 것'이라고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밤의 정찬은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도 위력적인 것이었다. 지상의 맛이 아니었던 버터볼 소라가 벌써 그립다.

DAY 6

LOST IN PLITVICE LAKE PARK

수많은 폭포로 연결되는
16개의 호수가 장관을 이루는
플리트비체 호수.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들이 많다.

플리트비체,
요정의 숲에서 길을 잃다

누구나 자신만의 낙원을 꿈꾼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숲 속의 오두막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서의 휴가일 수도 있다. TV속 광고를 통해 처음 이 푸른 호수와 숲을 봤을 때, 플리트비체야말로 내가 꿈꾸어 오던 낙원의 이미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공이 확대되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으니까. 꿈꾸던 낙원을 현실로 만나는 감동은 예상보다 더 컸다. 너도밤나무, 삼나무, 고사리, 투명한 호수 아래 사는 물고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짙은 우림 사이로 가지각색의 호수와 계곡, 폭포가 조화된 숲은 차마 상상화로도 담아낼 수 없는 원시림의 풍경을 그려냈다. 오래전부터 꿈꿔온, 그리고 비로소 처음 만난 나만의 낙원에서 깨달았다. 상상과 낭만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박한 일상에 치여 그들을 보지 못할 뿐.

골라 걷는 재미가 있다! 타입별 요정길

A루트
플리트비체의 하이라이트를 가장 짧게 둘러보는 루트. 트레킹 코스로 2~3시간이 소요된다.

B루트
A루트에 덧붙여 보트와 파노라마 기차로 이동하는 구간이 포함된 루트. 소요시간은 약 3~4시간

E루트
작은 폭포들이 이어지는 상부 호수를 보는 가장 짧은 파노라마 트레인 루트. 2~3시간이 소요된다.

H루트
상부와 하부 호수를 모두 보고 보트와 파노라마 기차도 타는 플리트비체 최고의 루트. 4~6시간이 소요된다.

1.
크로아티아 전통의상을 입은
공연자들
2.
나무를 깎아 만든 회전 그네
3.
'작은 플리트비체'라 불리는
라스토케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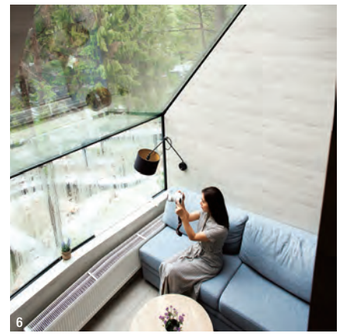
스스로 완성하는 동화, 라스토케 마을

연둣빛 물감을 풀어놓은 것만 같은 플리트비체 숲을 빠져 나와 동화처럼 예쁜 작은 마을을 만났다. '물의 마을'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라스토케(RASTOKE) 동화 마을이다. 졸졸 흐르는 개울을 통나무 다리로 건너는 라스토케는 어릴 적 읽던 그림 동화의 주인공들을 실제로 마주친다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목공 장인이 나무를 직접 깎아 만든 회전 그네를 감상하며 카페 페트라(Petra)의 포플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카푸치노 한 잔을 마셨다. 잠시 머문 나무 그늘 밑에는 어쩌면 가장 호기로운 꿈일지 모르는 다짐 같은 소원을 두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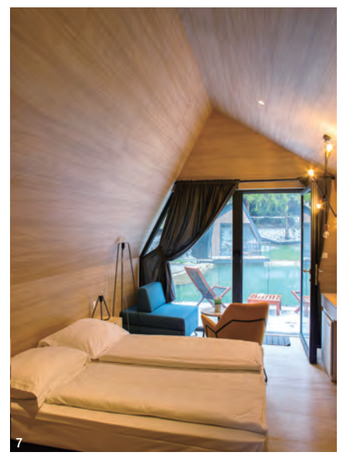
Plitvice Holiday Resort
Grabovac 102, 47 245 Rakovica
Tel: +385 47 784 192
www.plitvice.com

이런 휴식,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라보바츠(Grabovac)로 갔다. 하룻밤쯤, 알퐁스 도데의 소설 속 목동처럼 숲에서 보내며 별을 헤고 싶었다. 키 큰 소나무와 언덕으로 둘러싸인 플리트비체 홀리데이 리조트는 고립된 자연 속의 밤을 위한 완벽한 은신처였다. 문 앞의 초록 호수가 풀빌라 역할을 하는 레이크하우스와 지면 위에 수직 상승한 트리하우스를 놓고 고민하다 트리하우스를 택했다. 난방 시설과 위성 TV, 현대적인 전용 욕실을 갖춘 객실은 목동의 나무 집보다 훨씬 안락했다. 개울 위에 놓인 트램펄린과 글램핑 족들을 위한 언덕 위의 인디언 텐트를 보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동화적 감성도 채워줄 무척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프리클라이밍과 카약, 사이클링이나 승마 같은 여가 활동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다. 그래 봤자, 수백 년 된 나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새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든 밤보다 더 좋은 건 없었지만 말이다.



4.
공중 위에 부양한 트리하우스
5.
숲 속 호숫가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레이크하우스
6.
듀플렉스 구조의
트리하우스 내부
7.
호수가 보이는
레이크하우스 내부



DAY 5

SEA BREEZE FROM ROVINJ AND PORTOROZ

1

Hotel Monte Mulini
A.Smareglia 3, 52210, Rovinj
Tel: +385 52 800 250
www.maistra.com/hotel-monte-mulini-rovinj

2

3

1.
바다 위에 시원하게 펼쳐진
로빈 파노라마

2.
스텔라 디 마레의
그릴드 씨푸드 플레이트

3.
요트 정박장이
한 눈에 들어오는
호텔 몬테 물리니의 바

시간을 이겨낸 해안도시, 로빈

북부 아드리아해 연안과 이스트라 반도의 서부 끝. 유럽인들이 손꼽는 휴양지 로빈(Rovinj)에 이르자 여름이 수북이 쌓여가는 느낌이었다. 에메랄드 빛 바다 조차 이곳에서는 진푸른 사파이어 색이다. 잔잔한 바다와 요트, 올드 타운, 여유롭게 햇살을 즐기는 여행자들. 그 속에서 나 역시 한 조각 요트가 되고 싶었다. 방파제 인근 골목에 차를 세우고 올드 타운까지 걷기로 했다.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 덕분에 끝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로빈은 실제로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다. 그 흔적으로, 올드타운 구석구석에는 이탈리안 무드가 잉크처럼 스며들어 있다. 방파제 끝에 아슬아슬하게 몸을 걸친 레스토랑 스텔라 디 마레('바다의 별'이란 뜻)에서 우리나라의 모듬 해물에 해당하는 그릴드 씨푸드 플레이트를 주문했다. 케이퍼와 올리브, 레몬, 타임 향을 입은 향긋한 해물 요리로 깔끔한 맛의 화이트 와인과 완벽한 마리아주를 연출했다. 한때는 섬이었다가 지금은 육지가 된 올드타운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호텔 몬테 물리니(Monte Mulini)로 돌아왔다. 유리 파사드 너머로 요트 정박장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바에 앉아 진하다 못해 취할 것 같은 에스프레소를 음미했다. 비단 사람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고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작은 도시가 진정 위대해 보였다.

바다 위의 휴식, 포르토로즈

로빈에서 풀라(Pula)를 지나 계속 북진하자 채 한 시간도 안 되어 국경 검문소가 나온다. 슬로베니아로 진입하는 관문이다. 거기에서 다시 사십여 분을 달려 당도한 곳은 슬로베니아 서부의 해안도시 포르토로즈(Portoroz)였다. 반도 끝에서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고 있었다. 베르사이유 궁전을 떠올리게 하는 고풍스러운 켐핀스키 팰리스 호텔에 짐을 풀었다. 객실은 탐스러운 붉은 장미를 컨셉으로 꾸며져 있었고 창 밖으로 펼쳐지는 전망은 아름다웠다. 호텔 내에 별도의 수영장이 있었지만, 포르토로즈에 온 이상 꼭 해수욕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터였다. 세코블리예 살리나 자연공원(Sečovlje Salina Nature Park)의 광활한 갯벌에 자리잡은 아웃도어 스파, 레파 비다(Lepa Vida)로 향했다. 염전 위의 스파는 수묵담채화처럼 차분하고 고요한 초록 공간이었다. 해수를 채운 풀에서 이십여 분쯤 여독을 녹이고 나니 씨솔트 스크럽이 시작되었다. 부드러운 해풍이 발을 간지럽히는 하얀 캐노피의 마사지 베드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천국이었다. 리드미컬한 손놀림의 스크럽이 끝나자 실키한 머드랩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세요. 회복엔 그게 도움이 돼요." 테라피스트의 조언대로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도, 리모컨도 내려놓고 푹 쉬었다. 볼거리 많은 여행이라지만, 여백을 여백으로 남겨두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다.

4.
포르토로즈 인근의 휴양지,
피란(Pi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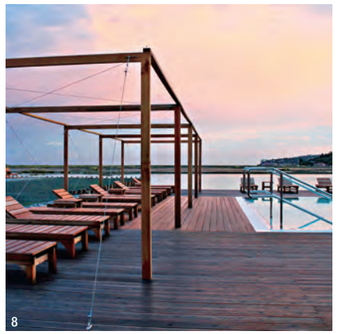
5.
요트가 점점이 떠다니는
포르토로즈의 바다

6.
켐핀스키 팰리스 포르토로즈 전경

7.
켐핀스키 팰리스에서 내다본
이스트라만

8.
염전 위의 탈라소 스파, 레파 비다

9.
레파 비다의 시그너처인
해수 머드랩



Kempinski Palace Portoroz
Obala 45, 6320 Portoroz
Tel: +385 5 692 70 00
www.kempinski.com/en/istria/palace-portoroz

Thalasso spa Lepa Vida
Seča 115, 6320 Portoroz
Tel: +385 5 672 13 60
www.thalasso-lepavida.si/

DAY 8

THE SLOVENIAN RAPSODY

LJUBLJANA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류블랴니차강

1.
용의 전설이 살아있는 도시,
류블랴나

2.
타운스퀘어에서 바라본 구도심

3.
류블랴나성 안의
인형 극장 겸 박물관

2

3

용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레고 마을

류블랴나에서 푸니쿨라를 타고 고성으로 들어가는 3분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시간 이동 체험일 것이다. 류블랴나성은 드라마 〈흑기사〉에 소개되며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성이다. 1144년 건축된 류블랴나성은 15세기 합스부르크 왕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 오스만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재건됐다. 전시실에서 류블랴나성의 역사를 담은 필름을 보고 난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나선형 계단을 빙빙 돌아서 오른다. 그 계단 끝에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만끽할 수 있는 '전망 타워'가 있기 때문. 전망 타워에서 바라보는 류블랴나는 꼭 클래식, 아르누보 건물을 촘촘히 심어놓은 레고 마을처럼 보인다. 성은 참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인형 극장도 있고 카페테리아로 변신한 창고도 있다. 금세라도 라푼젤이 긴 머리를 늘어뜨릴 것 같은 뾰족한 첨탑 지붕에는 중세의 흑기사로 분장한 웨이터가 음식을 날라 주는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어디도 동화가 아닌 곳이 없고 전설이 아닌 곳이 없다.

4.
밤의 가로등이 낭만적인
류블랴니차 강가

5.
레스토랑 '율리아'의 초컬릿 케이크

6.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류블랴나성 내부

7.
중세 고성의 식탁을 재현한
레스토랑 '율리아'

8.
류블랴나 구도심의 모자 상점

낭만의 가로등, 사랑이 넘치는 구시가

땅거미가 깔리고 거리의 가로등이 불을 밝히면 류블랴나는 더 없이 센티멘털한 도시로 바뀐다. 류블랴나라는 이름은 아예 '사랑하다(Ljubiti)'라는 슬라브어에서 유래했다. 도시는 이름만큼이나 사랑스럽다. 구시가와 신시가를 가로지르는 류블랴니차 강을 따라 걷고 또 걷고 싶은 거리가 이어진다. 구시가의 상징인 강변의 노천 카페도 운치를 더한다. 핸드메이드 모자, 고딕풍의 주얼리, 레이스 장식의 에이프런 등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상점들도 걷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정처 없이 떠돌다 강변의 유서 깊은 레스토랑 '율리아(Julija)'를 찾았다. 중세의 식탁에 향긋한 트러플 오일 향이 배어 있다. 비와 촛불과 향기의 밤이 더 없이 완벽하다. 류블랴나로 갈 예정이라고 전했을 때, 포르토로즈에서 만난 한 웨이트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리가 온통 블랙 일색일 거예요. 류블랴나 사람들은 블랙을 가장 멋지게 소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슬로베니아(SLOVENIA)라는 이름을 조심스레 더듬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름 속에 'LOVE'가 있다는 걸 말이다.

고성에서의 하룻밤

A KING'S NIGHT AT OTOCEC GRAD

오토체츠 그라드

**성에 관광객으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성의 '주인'이 될 차례다.
오토체츠 그라드는 시간을 거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이다.**

Otocec Grad Water Castle
Grajska cesta 2 SI-8222 Otočec ob Krki
Tel: +386 8 20 50 310
www.grad-otocec.com

류블랴나에서 차로 달려 삼십여 분. 수심이 얕아지는 크르카(Krka) 강 한 가운데에는 그림 같은 성이 있다. 차라리 환영에 가까운 고딕 양식의 성, 오토체츠 그라드(Otocec Grad)다. 성은 한 편의 전설처럼 신비로움으로 가득하다. 긴 복도와 고풍스러운 객실, 우아한 아치의 레스토랑은 영화 속 중세의 성 그대로다. 중세 체험의 묘미를 더하고자 최근에는 성 타워 중 하나를 최고급 와인셀러로 전환, 원탁에 둘러앉아 와인 시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넓은 정원에서 채취하는 신선한 채소, 크르카 강에서 타는 나무보트 등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중세로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 장치들이 마법의 하룻밤을 선사한다.

9

10

11

9.
율리안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웅장한 블레드성

10.
블레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카페 벨베데르

11.
티토의 초상화와
티토의 오래된 TV가 전시된
벨베데르 내부

12.
사공이 노를 젓는
나룻배로 갈 수 있는 블레드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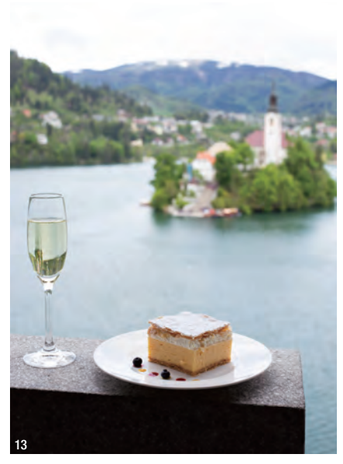
13.
블레드에 오면 꼭 맛봐야 할
'블레드 케이크'

Vila Bled & Café Belvedere
Cesta svobode 18, 4260 Bled
Tel: +386 (0)4 575 37 10
www.brdo.si/sl/vila-bled/

티토가 사랑한 여름 별장, 블레드

자꾸만 눈을 비비게 된다. 바람이 차갑고, 저 멀리로는 때아닌 설산(雪山)이 보인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서늘한 풍경, 블레드(Bled)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류블랴나로의 여행이 시대를 거스르는 여행이었다면, 블레드에 이르는 여정은 계절을 가로지르는 경험이다. '알프스의 진주'라 불리는 블레드 호수는 보힌 호수와 더불어 알프스 만년설이 녹은 물로 이루어진 빙하호로, 크기는 보힌 호수의 3분의 1 정도 된다. 그 놀라운 경험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 유고 연방의 초대 대통령인 티토가 사랑했던 여름 별장이 있는 블레드 호를 조우한다. 찰스 황태자, 폴 매카트니 같은 명사들이 묵고 갔던 티토의 여름 별장은 호텔 빌라 블레드로 변신해 수많은 허니무너와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가 VIP 게스트를 초대해 티파티를 열곤 했던 빌라 블레드 뒤편의 별관 건물은 더 없이 고풍스러운 카페 벨베데르(Café Belvedere)로 변모해 있다. 견줄 대상 없이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카페 벨베데르는 오늘도 티토가 VIP들에게 디저트로 선보인 '블레드 케이크'를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로 분주하다. 블레드 호수 가운데에 있는 블레드 섬(Bled Island)은 슬로베니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연인이 생기면 한 번은 꼭 찾는 데이트 코스다. 뱃사공이 직접 노를 저어 섬에 데려다 주는 '플레타나(Pletana)' 나룻배에 몸을 싣고 있노라니 시인 발렌틴 보드닉이 어째서 이 땅을 그토록 찬미하는 시를 썼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12


13

DAY 9

INTO THE CROATIAN MARCH, ZAGREB

1

2

Canopy by Hilton Zagreb
Ul. Kneza Branimira 29, 10000, Zagreb
Tel: +385 1 4559 505
https://canopy3.hilton.com/en/hotels/croatia

1.
독특한 조형물로
눈길을 사로잡는
나이브 아트 갤러리

2.
캐노피 바이 힐튼
디자인 호텔의 로비 바

**눈부신 초록, 달콤한 무화과 향,
그리고 빨간 하트**

슬로베니아에서 국경을 넘어 자그레브로 들어오자 흑백 TV에 다시 컬러가 입혀진 듯했다. 암만 봐도 자그레브는 디자인의, 디자인에 의한, 디자인을 위한 도시다. 모노톤의 류블랴나와 달리, 이곳은 무채색의 단조로움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캐노피 호텔 라이브러리 바에서 크루아상과 커피, 꿀과 오렌지 주스로 아침을 해결하고 거리로 나섰다. 녹색의 도시 자그레브만큼 도보 여행이 즐거운 수도도 세상에 없다. 이국적인 꽃들이 만발한 예술 전시관과 고고학 박물관을 거쳐 자그레브의 심장, 반 옐라치차 광장에 이른다. 활기 넘치는 관광객과 다소 무심하게 지나치는 현지인들 사이에 서 있자니 진짜 자그레브에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캅톨 언덕 위에 세워진, 자그레브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대성당을 둘러보고 돌라츠 시장으로 향한다. 싱싱한 무화과에서 크로아티아의 힘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 시장과 연결되는 돌의 문을 지나니 그림처럼 예쁜 트칼치체바 거리가 나타난다. 다시 여기서 완만한 언덕을 오르니 자그레브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성 마르카 교회로 이어진다. '테트리스 게임'을 연상시키는 이 사랑스러운 광장이 크로아티아의 정치 일번지라니! 정오가 되기 5분 전.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의 초조함으로 로트르슈차크 탑으로 달려간다. 이곳에서는 매일 정오에 대포를 쏘는 작은 행사가 열린다. "팡!" 대포가 터진다. 시계를 확인한다. 정확히 정오 12시. 소리는 짧지만 여운은 길다.

—
자그레브 구 도심의 성 마르카 광장 한가운데 자리한 성 마르카 교회는 여러모로 아주 독특한 건물이다. 교회는 그 상징성 만큼이나 도드라지는 장식성으로 눈길을 끈다.

Brokenships Bistro
Katarinin trg 3, 10000, Zagreb
Tel: +385 1 2035 906
https://brokenshipsbistro.c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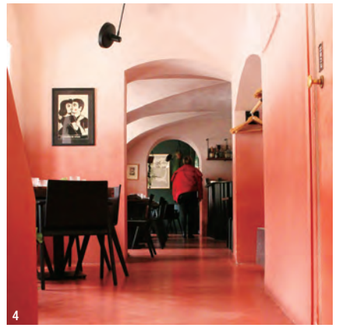
3.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로 주고받는
자그레브 하트

4.
실연박물관 1층에 자리한
브로큰쉽스 비스트로

5.
자그레브를 찾는 이유가 된
실연박물관

6.
브로큰쉽스 비스트로의 브로큰 디저트.
산산조각내 먹는 묘미가 있다.

7.
옛 유고 시절에 대한 향수가 느껴지는
자그레브 도심의 파란 전차


4

끝이 있는 곳에 새로운 시작도 있나니

'저는 결혼의 꿈에 들떠 이 웨딩드레스를 장만했습니다. 몇 번을 입어봤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사흘 전 당신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 드레스를 입지 못할 겁니다.' 올드 타운 언덕길의 실연박물관(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에는 달콤한 사랑의 기억, 그리고 고통스런 이별의 흔적들이 가득하다. 연인에게 선물했다 헤어지면서 돌려받은 신발부터 눈물에 젖어 잉크 자국이 흐려진 러브 레터는 이곳에 들어온 모든 이들로 하여금 말을 잃게 만든다. 그것이 결코 타인의 흔적, 상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아래층에 있는 '브로큰쉽스 비스트로(Brokenships Bistro)'에서는 '브로큰 디저트'를 판매한다. 종잇장처럼 얇은 디저트를 부수며 나쁜 기억을 파괴하는 의식도 치르라는 것이다. 잘못 입력된 기억들을 깨끗이 지우고 좋은 기억만을 채워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붕과 노을로 붉게 물들어가는 언덕을 내려오다 보니 어느덧 정든 빨간 지붕 마을에 작별을 고할 시간이다. 아쉬움 가득한 마음에 반옐라치차 광장의 상점에서 크로아티아의 지붕을 닮은 벽돌색 원피스를 구입했다. 그 원피스가 빛나는 주인공들로 채워진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 여행을 기억 속에 오래도록 소환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름다운 편린들로 9일간의 추억을 만들어 준 빨간 지붕 마을이여, 안녕.

5

6

7

빨간 지붕마을에서 쓴 여행 일기

The Unforgettable Moments

못다한 이야기들. 차마 버릴 수 없어 그곳에 두고 온 소중한 순간들.

두브로브니크에서는 아이스크림이 '갑'이다. 갈증에 목이 타 들어갈 때, 시원하게 해준 건 소다나 물이 아닌 체리쥬빌레 아이스크림이었다.

물의 마을 라스토케를 걷는데 누군가 다리 위에 끄적인 낙서가 하나 들어왔다. '하쿠나 마타타' 저 낙서는 대체 어떻게 쓴 걸까?

800년된 약국이 있다는 두브로브니크의 프란체스코 수도원. 그곳에서 산 장미크림보다 수도원 안의 장미 정원을 못 잊을 것 같다.

그들의 정은 한국인의 정만큼이나 '위대'했다. 쉬베니크의 요리사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요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흐바르 사람들은 각별한 감정 시계에 따라 살아온 듯 했다. 우리가 탈 배 시간이 다가오자 동네의 점박이 개가 따라 나와 우리를 배웅했다.

자그레브에 묵던 날, 이상 기후가 찾아왔다. 기온이 뚝 떨어진 아침, 거리에는 빨강, 분홍 옷을 입은 '자그레브 패셔니스타'들이 넘쳐났다.

'앱솔루트'라는 이름의 요트는 애만 태웠다. 로빈의 성난 바다는 끝내 항해를 허락치 않았고 앱솔루트는 이루지 못한 '절대적' 욕망으로 남았다.

뜨개질 하는 손이 그토록 빠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삼십 년 넘게 뜨개질을 해온 수녀님의 손은 실로 기민하고 테크니컬 했다.

금세라도 벗겨질 듯한 청바지가 화분으로 변신해 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 자그레브는 위트와 유머로 역사의 상흔과 상처를 달래 온 듯 했다.

1

빨간 지붕 마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TOP 6 SNAPSHOT SPOTS IN THE RED-ROOFED TOWNS

1. 두브로브니크의 해안 절벽, 또는 테라스. #낭만끝판왕 **2.** 몬테네그로 코토르 항구. #완벽한휴양지인증샷 **3.** 플리트비체 숲이나 라스토케 마을. #동화속요정되기 **4.** 푸른 아드리아해가 보이는 오션뷰 객실. #인생샷건지기 **5.** 두브로브니크의 좁은 가로등 골목. #왕좌의게임무드의게임 **6.** 블레드 섬이 잘 보이는 호숫가. #나만간직하고픈비밀

4

6

5

면세 쇼핑의 혜택을 더 크게

SHINSEGAE
DUTY FREE

SHINSEGAE
DUTY FREE

KALPAK 고객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신세계면세점 PRESTIGE VOUCHER

KAL PAK
• KALPAK을 통해 여행상품 예약한 고객 대상

■ **BLACK MEMBERSHIP 발급권**
교환기간 | ~2019.12.31까지
발급장소 | 명동점 12층 내국인 고객센터 / 강남점 1층 고객센터

■ **스마트 선불 15만원 교환권**
교환기간 | ~2019.12.31까지
사용장소 | 신세계면세점 오프라인 명동점, 강남점
교환장소 | 명동점 12층 내국인 고객센터 / 강남점 1층 고객센터

■ **THE BLACK 라운지 이용권 2매**
라운지 입장기간 | ~2019.12.31까지
라운지 이용인원 | 본인 + 동반 2인

인천공항 제1터미널 / 탑승동 / 제2터미널점 | 명동점 | 강남점 | 부산점 | 인터넷면세점

The new C-Class with Mercedes me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Coupé.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4MATIC Coupé (배기량: 1,950cc, 공차중량: 1,755kg, 자동9단), 복합연비: 14.2km/ℓ (도심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 CO_2 배출량: 134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낮보다 활기찬 아주 특별한 여름 밤!

길고 깊은 여름 밤.
그냥 잠들기에 너무 아쉽다면 특별한 밤을 색다른 체험과 함께 할 것.
넘치는 아드레날린을 차분히 재워줄 별별 나이트 체험들.

글 임지영

ONE DYNAMIC SUMMER NIGHT

박물관은 깨어 있다!

'밤'과 '박물관'은 얼핏 생경한 조합이다. 그 낯선 조합을 베를린에서 유쾌하게 만날 수 있다. 일년에 단 하룻밤, 새벽 2시까지 박물관을 순례할 수 있는 행사인 '롱나잇 오브 뮤지엄스(Long Night of Muscums)'는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실사판이다. 20년이라는 역사만큼이나 흥미로운 건 어마어마한 규모. 올해는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시내 박물관이 80개가 넘으며 800여개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거점을 잇는 셔틀버스가 새벽까지 운행한다니 영화속에서처럼 박물관에 갇힐 일은 절대 없을 듯!

NIGHT BUNGY, QUEENSTOWN, NEW ZEALAND
뉴질랜드 퀸즈타운, 나이트 번지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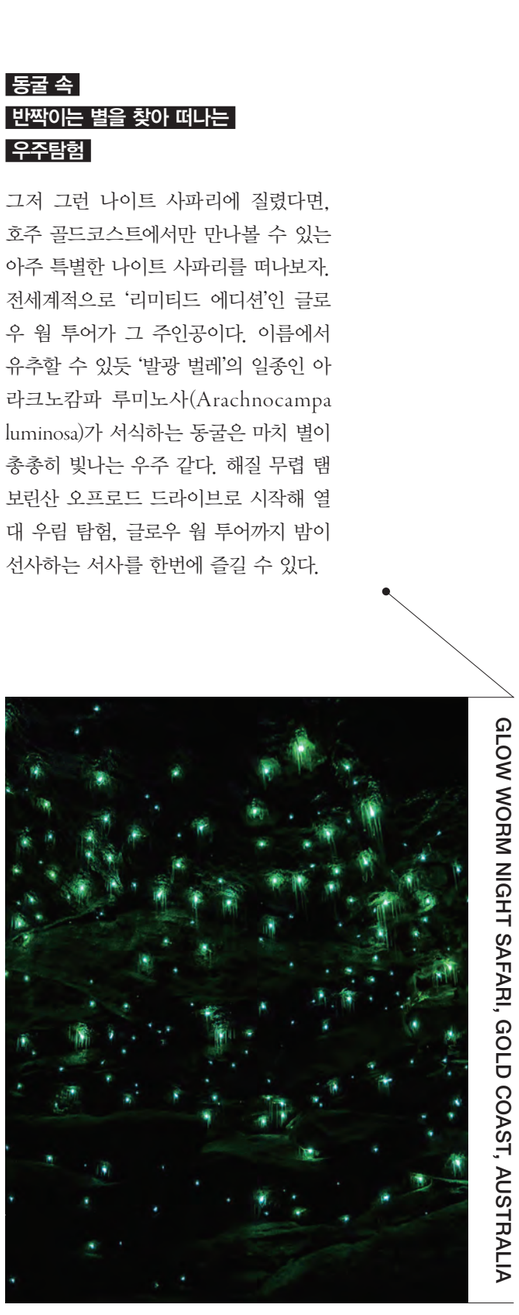
독일 베를린, 롱나잇 오브 뮤지엄스
LANGE NACHT DER MUSEEN, BERLIN, GERMANY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의 번지

뉴질랜드 출신의 익스트림 스포츠 사업가 A.J.해킷(A.J.Hackett)은 보다 짜릿한 번지점프 장소를 찾아 전세계를 헤매던 중 1987년 파리 에펠탑에서 불법으로 고무줄을 동여맨 채 뛰어내렸다. A.J.해킷의 도전정신을 기리며 그의 이름을 딴 회사가 번지점프의 발상지인 뉴질랜드 퀸즈타운에서 야간 번지점프 서비스를 제공한다. 번지점프는 해질녘 혹은 별이 총총 떠오를 무렵 도심 400미터 상공에 위치한 스카이라인에서 시작된다. 두려움 없는 도전자라면 리프트를 타고 상공을 오를 것. 전무후무한 스릴과 짜릿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동굴 속
반짝이는 별을 찾아 떠나는
우주탐험

그저 그런 나이트 사파리에 질렸다면, 호주 골드코스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나이트 사파리를 떠나보자. 전세계적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인 글로우 웜 투어가 그 주인공이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발광 벌레'의 일종인 아라크노캄파 루미노사(Arachnocampa luminosa)가 서식하는 동굴은 마치 별이 총총히 빛나는 우주 같다. 해질 무렵 탬보린산 오프로드 드라이브로 시작해 열대 우림 탐험, 글로우 웜 투어까지 밤이 선사하는 서사를 한번에 즐길 수 있다.



호주 골드코스트, 글로우웜 나이트 사파리
GLOW WORM NIGHT SAFARI, GOLD COAST, AUSTRALIA

대만 타이중, 도심 속 폐허 걷기
RUINS NIGHT WALK, TAICHUNG, TAIWAN

한밤에
도심 속 폐허 걷기

공포란 참 묘한 감각이다. 무서워 몸서리를 치다가도 이를 극복하는 순간 더 '센 것'을 찾게 되니까. 일제강점기와 초고속 경제성장을 거치며 도심 곳곳에 폐허가 산재한 대만 타이중은 도심 속 공포 체험을 위한 최고의 장소다. 'Ruins Night Walk'를 신청하면 박물관부터 옛 나이트 클럽, 귀신 소문이 무성한 빌딩까지, 모두 잠든 심야 약 2시간 동안 도심 속 폐허와 터널을 지나며 극한의 극기 훈련을 하게 된다. 준비물? 무엇이 나타나도 끄떡없을 강심장과 튼튼한 두 다리면 충분하다.

뉴욕 창공에서
'미션 임파서블' 찍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부터 브룩클린 브리지, 원 월드 드레이드 센터 전망대까지 뉴욕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폿들로 넘쳐나는 도시다. 그런데 이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특급 서비스가 있어 화제다. 밤 비행기로 뉴욕에 도착하는 이들을 위한 헬리NY의 헬리콥터 투어 서비스가 그것. 뉴저지 린든 공항에서 출발해 센트럴파크, 자유의 여신상까지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를 따라 비행하는 30분은 그 어떤 영화보다 스펙터클하다.

미국 뉴욕, 플라이 바이 나이트
FLY BY NIGHT, NEW YORK, USA

KALPAK CLASS

GREAT ESCAPE

현대적인 감각, 낙천적인 여유로움, 트렌드를 꿰뚫는 패션 센스, 여행을 즐기는 자세까지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이토록 완벽한 서머 리조트 패션.

에디터 김홍주

자료협조 구찌, 랑콤, 마이클 코어스, 멀버리, 모스키노, 베르사체, 벨루티, 브레게, 에르메스, 에스카다, 에트로, 토리 버치, 토즈, 투미, 프레드, 휴고 보스

STUNNING & ELEGANT WEAR FOR WOMEN

❶

❷

❸

❹

❶ 산뜻한 옐로 컬러, 템플에 가죽 위빙 디테일로 장식한 오버 사이즈 보잉 선글라스, **토즈** ❷ 여러 방향으로 패치된 스트라이프 디자인의 100% 실크 드레스와 유니크한 레더 샌들의 조화가 시크한 보스 우먼 컬렉션, **휴고 보스** ❸ 핸들 혹은 크로스바디 스트랩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이탈리안 캔버스 소재의 밀러 미니 토트백, **토리 버치** ❹ 설치미술가 이니 아르키봉이 디자인한 시계로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150개가 세팅된 갤롭 데르메스, **에르메스**

❺

❻

❾

❼

❽

❿

⓫

❺ 로즈 오일을 함유해 부드럽고 촉촉한 압솔뤼 마드모아젤 샤인 립스틱 #368 스마일, **랑콤** ❻ 토파즈, 블루 사파이어,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스텐 그라데이션 브레이슬릿, **프레드** ❼ 에스닉한 패턴, 등이 깊게 파인 디자인으로 우아한 비치룩을 완성하는 맥시 드레스, **토리 버치** ❽ 보디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 꽃처럼 퍼지는 나팔바지 스타일로 우아하고 드레시한 플로랄 기퓌르 점프수트, **마이클 코어스** ❾ 버킨백 실루엣, 탈부착 가능한 톱 핸들과 가죽 스트랩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햄스테드 백, **멀버리** ❿ 펜으로 쓱싹쓱싹 낙서한 것처럼 그려낸 독특한 프린트로 키치한 매력을 살린 체인 프린트 원피스 수영복, **모스키노** ⓫ 가죽 끈을 발목 위로 내추럴하게 감아 올려 신는 오픈 토 디자인의 말런 레더 레이스업 샌들, **마이클 코어스**

THE COMPLETE RESORT WEAR FOR MEN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❶ 벨루티 특유의 필기체 레터링이 고급스러운 실크 100% 소재의 스크리토 포켓 스퀘어 스카프, **벨루티** ❷ 옐로와 블루, 다크 블루 컬러가 다채롭게 연결된 100% 코튼 소재의 스트라이프 폴로셔츠, **에트로** ❸ 버진울 100% 소재에 깔끔한 사이드 & 플랩 포켓, 핸드 스티치 디테일로 멋을 낸 화이트 팬츠, **벨루티** ❹ 가죽과 스웨드 소재를 적절히 매치한 세련된 디자인, 지퍼와 포켓을 활용해 실용성을 높인 백, **토즈** ❺ 레몬, 그린애플, 민트 오일 등으로 프레시하고 열정적인 남성을 표현한 베르사체 에로스, **베르사체** ❻ 에트로의 감성을 담은 패치워크 패브릭에 송아지 가죽으로 포인트를 준 패치워크 에스파드리유, **에트로** ❼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겸비한 알파 브라보 셰퍼드 디럭스 브리프 팩과 실용적인 게코 컬러 19 디그리 알루미늄 캐리어, **투미**

❽

❾

❿

⓫

⓬

⓭

⓮

❽ 실용적인 디자인에 넉넉한 수납공간, 빈티지한 로고가 돋보이는 구찌 프린트 라인의 소프트 레더 토트백, **구찌** ❾ 큐코튼 피케 패브릭에 3개의 자개 단추가 달린 플래킷, 아이코닉한 스크리토 자수로 포인트를 준 스크리토 코튼 폴로 티셔츠, **벨루티** ❿ 심플한 메탈 프레임에 톱바를 우븐 레더로 장식한 선글라스, **토즈** ⓫ 우거진 정글 프린트에 겉감은 100% 폴리아미드, 안감은 100% 폴리에스터 소재, 허리 부분에 드로스트링이 들어가 신축성도 좋은 스윔웨어, **에트로** ⓬ 플래티넘 케이스, 악어가죽 스트랩, 균시차, 퍼페추얼 캘린더, 투르비옹을 탑재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 마린 에콰시옹 마샹 5887, **브레게** ⓭ 라이트 핑크 컬러의 봄버 재킷, 실크 소재 셔츠와 코튼 팬츠, 딥 버건디 컬러의 더비 슈즈로 뽐낸 보스 맨 컬렉션, **휴고 보스** ⓮ 스웨이드 소재, 돌기를 심은 러버 아웃솔, 섬세한 스티칭 장식이 어우러져 발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로퍼, **토즈**

VENEZIA AND MURANO GLASS

불과 얼음이 만나 일군 황홀의 결정체

무라노 글라스는 베네치아 유리공예의 진수다.
반짝이는 물빛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세공품은 물의 도시를 매혹으로 이끈다.

에디터 한유리

투명한 물 위로 반짝이는 물결이 일렁인다. 아침 햇살을 머금은 베네치아의 풍경이 지나는 이들의 얼굴을 환하게 수놓는다. 아침부터 복잡한 골목길을 가로질러 바포레토를 탔다. 수로를 따라 늘어선 건물 사이로 작은 다리가 이어지고, 물그림자가 벽을 물들이는 유리의 섬 무라노가 시선 끝에 걸린다. 베네치아의 글라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000년이 넘도록 세공해온 유리공예 기술 덕분이다. 베네치아의 크고 작은 유리공방은 모두 무라노 섬에 있다. 작은 섬 무라노에 유리공예 공방이 모여든 이유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물의 도시'라 불리는 베네치아였지만, 유리 공방은 불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종종 화재가 일어나자, 베네치아 대의회는 1291년 유리공들이 무라노로 이주하도록 명했다. 도시 안전을 위해서였다.

1

2

1
모래는 1400도의 뜨거운 담금질을 거쳐 유리가 된다

2
크고 작은 유리 공방들이 모여있는 무라노 섬

무라노의 명성은 높아만 갔다. 유럽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핀 르네상스와 맞물려 화려하고 섬세한 유리세공품이 인기를 구가했다. 15세기 무라노 유리장인들은 투명한 크리스털(cristallo)을 만들었다. 언뜻 보면 도자기처럼 보이는 일명 '우유 유리(lattimo)'도 개발했다. 섬세하고 놀라운 베네치아 유리공예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불안해진 정부는 세공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유리장인들을 무라노 섬에 가뒀다. 심지어 섬 밖으로 도망치는 이들은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5년간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형벌을 받기도 했다.

무라노 유리의 성분은 놀랍게도 70%가 모래다. 대부분의 물질이 모래인 유리가 1400℃의 뜨거운 가마에 담금질 되면 유리가 된다. 섬 곳곳을 차지한 공방과 골목길 상점에는 화려한 유리 꽃병과 샹들리에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리공예가의 후예들은 여전히 무라노에 남아 유리를 만든다. 화려한 세공품에 비해 골목은 소박하다. 투박한 골목길에 세공된 이들의 시간이 여행자의 발길을 어지러이 뒤흔든다.

EAT PRAY LOVE

영화 속에서 발견한 발리

복권 대신 세 장의 비행기 티켓을 들고 떠난 서른한 살의 저널리스트 리즈.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아서 떠났던 1년 간의 여정은 신들의 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마침내 끝을 맺었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주 무대인 발리 우붓(Ubud)에서 찾아낸 사랑했던 순간들.

에디터 이현화

“Believe love again!”

Jl. Raya Ceking Tegallalang /| Between Tegalalang and Ubud, Ubud 80517, Indonesia

뜨갈랄랑 계단식 논

영화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계단식 논(rice terrace)’은 발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다랭이 논’과도 비슷한데, 농사지을 공간이 부족해 산을 개간한 결과라고 한다. 갓 짜낸 코코넛 음료를 마시면서 코코넛 잎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스냅사진을 찍어보자. 우붓에서 북쪽으로 차로 30분 거리다.

“Ruin is a gift.”

Jl. Monkey Forest, Ubud, Kabupaten Gianyar, Bali 80571, Indonesia
+62 361971304

몽키 포레스트

힌두교에서 원숭이는 악마의 왕인 라바나와 맞서 싸운 하누만의 화신이다. 몽키 포레스트의 본래 뜻은 ‘신성한 원숭이 사원’. 이름처럼 공원 내에 달렘 아궁, 우따마 만달라 등 이끼 덮인 고대 사원들이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600마리의 야생원숭이는 사진 찍기에 좋은 모델이자 목걸이, 가방 등을 낚아채는 장난꾸러기라 주의가 필요하다.

“Meet me at the dock-Sunset!”

Jl. Labuansait, Pecatu, Kuta Sel., Kabupaten Badung, Bali 80361, Indonesia

빠당빠당 해변

서핑의 천국 발리에서도 국제 서핑대회가 열릴 만큼 서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빠당빠당(Padang Padang) 해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파도를 자랑한다. 영화처럼 해변파티가 열리기도 하고,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헤엄치기도 하고, 보트를 타고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기도 한다. 마침내 영화의 마지막, 리즈가 다시 사랑하고자 용기를 내 펠리페에게 프러포즈한 장소이기도 하다. 내국인은 IDR 5,000, 외국인은 IDR 10,000의 입장료가 있다.
아트라베시아모(Let’s cross over)!

“Can we start with a coffee?”

Jl. Raya and Monkey Forest Road, Ubud 80571, Indonesia

우붓 전통시장

리즈와 펠리프의 첫 데이트 장소였던 우붓 전통시장(Ubud Traditional Art Market). 우붓 메인로드의 중간 쯤인 우붓 왕궁 맞은편에 있다. 우붓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으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쏠쏠하다. 펠리페의 표현대로 ‘오렌지와 자두가 사랑을 나눈 것 같은 맛’의 람부탄이나 ‘더러운 발가락 맛’이 나는 두리안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핸드메이드 소품, 그림, 목공예품, 의류, 잡화 등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팔지만 흥정은 필수. 새벽 6시쯤 방문하면 발리 현지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Sometimes to lose balance for love, is part of living a balanced life.”

Banjar Tanggayudha, Desa Kedewatan, Ubud 80571, Indonesia
+62 361980252
http://hotelpuriwulandar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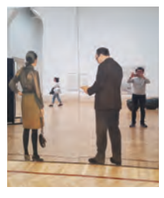
뿌리 울란다리 리조트&스파

자연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뿌리 울란다리 리조트(Puri Wulandari Resort&Spa)’는 어떨까. 영화 속 리즈가 머물던 집으로 등장했던 이곳은 우붓의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로맨틱한 휴식을 약속한다. 전 객실에 전용 수영장이 있으며, 도서관과 칵테일바, 이탈리안을 비롯한 글로벌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등을 갖췄다. 스파 트리트먼트는 물론 쿠킹클래스, 요가, 사이클링 등의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나무 냄새와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어느 물리학자의 즐기면서 배우는 여행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여행을 간다.
단지 이곳을 떠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내 경우는 일부러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뜻밖의 '채움'이 즐거워서다.

글 김상욱 (경희대 교수. 물리학자이자 〈울림과 떨림〉의 저자. '알쓸신잡' 출연중)



지난 4월초 학회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하루 정도 관광할 시간을 낼 수 있었다. 로마는 이번으로 세 번째 방문이다. 포로 로마노, 바티칸, 콜로세움은 이미 다 보았기에 이번에는 미술관투어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술은 시각예술이다. 시각은 분석적인 활동이다. 소리는 골라 들을 수 없지만, 시각은 한 부분만 집중해서 볼 수 있다. 정밀함에 있어 청각이나 촉각은 시각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시각은 그 속성상 과학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감각이다.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감정이 고양되지만, 그림을 볼 때 논리적 사고를 진행시킨다. 청각은 감정적이고 시각은 논리적이다. 이렇게 미술은 과학이다. 나는 특히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다. 르네상스 이래로 미술의 목표는 대상을 최대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원근법은 당시 화가가 가진 궁극의 무기였다. 하지만 19세기 사진기가 발명되자 화가는 목표를 상실한다.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있어 사진기를 이길 방법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화가들은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했다. 대상을 최대한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면 미술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하는가? 그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현대미술은 그 유파만큼이나 많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림을 보며 이런 철학적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적어도 내가 느끼는 현대미술의 매력이다.

로마에는 세 개의 현대미술관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로마현대미술관(MAXXI), 로마동시대예술박물관(MACRO)이다. 모두 보르게세 공원 인근에 있으니 플라미니오역 근방에 숙소를 정하면 편리하다. 국현은 19세기부터 20세기의 현대미술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고흐, 마네, 칸딘스키, 잭슨 폴락, 모딜리아니, 몬드리안 같은 유명 화가의 작품은 물론 현대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이 가득하다. 가급적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목표인 듯 보인다. MAXXI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Zhao Zhao의 〈in extremis(극한의)〉였다. 뜬금없이 미술관 바닥에 깔린 아스팔트 자체가 작품이다. 둔덕이 있어 자칫 넘어질 수도 있다. 작가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수많은 동물을 생각하며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여운이 많이 남았다.

MACRO는 작품전시보다 예술의 허브역할을 하는 장소다. '아틀리에'에서는 화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장면을 직접 볼 수도 있다. 미술작품을 화집으로 보면 되지 왜 직접 가서 봐야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크기가 다르다. 크기가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펠탑을 모형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보라. 색깔이 다르다. 구글로 그림을 검색해보면 사진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테일을 볼 수 있다. 살바도르 달리는 세밀화가다. 그의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물감의 두께가 일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디테일이 숨어있는데, 달리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같아 흥미롭다. 끝으로 표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고흐의 그림은 붓질을 보는 즐거움이 크다. 붓으로 물감을 푹 찍어서 엄청난 두께로 그냥 쓱쓱 문질러 그렸기 때문이다. 콜라주나 다른 특수기법을 사용한 작품의 경우, 직접 보지 않고 질감을 느끼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림을 제대로 즐기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원본을 봐야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여행을 간다. 단지 이곳을 떠나고 싶거나, 아니면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다. 이국적인 풍경, 이국적인 음식을 즐기려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때로 미술관 관람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이번 여행을 대비하여 미리 미술공부를 했고, 덕분에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알쓸신잡〉의 후유증일지도 모르지만, 지식과 예술을 즐기는 여행도 충분히 재미있다.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www.koreanair.com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졌습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계절의 재발견

겨울 나라로 떠나는 여행에는 묘한 쾌감이 있다. 그곳의 청량한 공기만큼 여름에 대한 그리움도 진하게 묻어난다.

글 임지영

몇 해 전 여름 한복판에 뉴질랜드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남해안에서 입은 선번(sunburn)을 겨울로 접어든 남반구의 시원한 청정 공기로 달랠 생각이었다. 온도계의 눈금이 가까스로 영상을 기록한 퀸즈타운의 한 카페에서 페르시안 고양이의 눈동자처럼 파란 와카티푸 호수를 감상하며 커피를 마시던 중 '한국은 오늘도 폭염 열일 중'이라는 친구의 문자를 받았다. 여름을 지나고 있는 한국과 한 겨울에 안착한 뉴질랜드가 전하는 선명한 대비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 홀로 지구별을 떠나 또 다른 행성을 여행하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계절을 거스르는 여행에는 묘한 즐거움이 있다. 겨울에 여행하는 카리브해나 여름에 여행하는 남반구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명 며칠 전까지 선 크림에 립글로스를 바르다가 라놀린 크림에 마누카꿀 립밤을 바르다 보면, 혹은 하와이언 프린트의 원피스에 샌들을 신고 모래 위의 조개를 줍다가 어그 부츠에 메리노울 스웨터를 입고 양들에게 건초를 주다 보면 새삼 지구가, 아니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고 광활한 시공간인지 감탄하게 된다. 그 날 저녁, 유난히 추운 밤이라며 롯지 관리인이 벽난로를 피워주었다. 와인도 한 잔 홀짝였겠다 책을 읽는답시고 따뜻한 불 앞에서 깜빡 졸았던 모양이다. 눈을 떴을 때는 남해안의 하얀 파도가 펼쳐져 있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 파도의 거품이 아니라 하얀 고깔 모자를 쓴 창 밖의 설봉이었다. 나도 모르게 한국의 여름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여행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새로운 '재발견'이라는 단상이 새삼 잉크처럼 번졌던 겨울 밤, 아니 여름 밤이었다.

열대우림 품은
도심 속 오아시스

CAPELLA SINGAPORE

카펠라 싱가포르

**지난해 여름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장소로 매스컴에 그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 카펠라.
카펠라 싱가포르는 여러모로 아주 독특한 곳이다. '아름답다'는 형용으로는 부족하다.
19세기 식민지 유산이라는 토양 위에 유려한 곡선으로 쌓아올린 현대적 디자인은
'보기 드문 걸작'이라는 수식을 얻기에 충분하다.**

자연을 닮은 호화로운 휴식처

호텔과 비교해도, 리조트와 비교해도 확실히 다르다. 카펠라 싱가포르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건 호텔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두 개념, 즉 '접근성'과 '프라이버시'의 만남이다. 싱가포르 도심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인 센토사섬 안에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카펠라는 울창한 열대우림에 감싸여 있어 동시에 비밀스러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계적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타나 메라의 '붉은 지구'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하얀 외관과 붉은 지붕은 옛 식민지풍의 매력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고루 느끼게 해준다. 객실은 총 112개로, 전용 수영장과 야외 욕조를 갖춘 2개의 콜로니얼 하우스가 있으며, 바다와 맞닿은 72개의 스위트룸과 듀플렉스, 개인 풀장이 딸린 9개의 마노 하우스로 구성된 클럽 레지던스도 운영중이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넓은 숙박 시설을 자랑하고 센토사 섬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카펠라에 속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다.

카펠라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

카펠라의 아침은 특별하다.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하는 공작새들과 함께 하는 The Knolls에서의 조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 정통 싱가폴 음식은 물론, 세계 각국의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 계단식 수영장의 멋진 전망을 즐기며 울창한 숲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만끽하는 것은 덤이다. 오후 4시가 되면 특별한 수업이 무료함을 달래준다. 럼주 시음과 캔버스에 그림 그리기 체험이 그것으로, 평소 술에 관심이 있다면 럼주의 기원과 역사를 배우며 시음해볼 수 있는 기회를, 손수 그린 그림을 여행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다면 캔버스 페인팅 클래스를 선택하면 된다. 배움의 즐거움을 더한 여행이 특별한 기억으로 아로새겨진다.

TASTY EMPIRE,
THE KNOLLS

신메뉴로 더 맛있어진 THE KNOLLS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카펠라의 미식 코스 중 싱가폴 전통 음식과 다국적 요리를 고루 만날 수 있는 The Knolls는 최고의 레스토랑이다. 특히 올 2월부터는 지중해식 신메뉴와 지역 특선 요리를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스페인,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그리스 등지에서 영감을 얻은 이그나시오 모레노 셰프의 야심찬 신 메뉴들이 아름다운 계단식 웅덩이, 허브 정원과 어우러져 특별함을 더한다. '카펠라 특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인 The Knolls에서의 식사를 놓치지 말 것!

KALPAK COLLECTION

2019 SUMMER

여행, 삶에 쉼표를 찍다

여행은 일상과 쉼을 구분 짓는
뚜렷한 선이자 오롯이 나를 바라보는 과정이다.
바쁜 일상을 충실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면
조금은 특별하고 남달라도 좋지 않을까.

남다른 자유여행의 시작

삶이 다르면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VIP 고객들만을 위한
KALPAK의 맞춤형 여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문의 02. 726. 5800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빌딩 6층 KALPAK팀

KALPAK 맞춤여행 견적 및 예약 절차

1. 여행 문의: 선호하는 여행지 혹은 여행상품에 관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들어보고 상담한다.
2. 여행 일정 및 견적: 여행 일정 및 견적은 상담 후 3일 이내에 안내받을 수 있다.
3. 견적서 등 상품 콘텐츠 확인 후 여행 진행 여부 확정
4. 비용 결제 및 여권 사본 제출
5. 여행 안내문 발송: 여행 관련 항공, 호텔, 차량 및 가이드 등 주요 진행사항 확정 후 안내문과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6. 해피콜 진행: 여행 종료 후 3일 이내에 여행 관련 만족도를 묻는 해피콜이 시행된다.

KALPAK 멤버십 통합

2019년 2월 1일부로 KALPAK 멤버십이 한진관광 멤버십 내
〈KALPAK 회원〉 자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한진관광 멤버십 〈KALPAK 회원〉 전환 방법**

  기존 KALPAK 멤버십으로 로그인 ▶ 멤버십 전환 신청 ▶
  한진관광 멤버십 〈KALPAK 회원〉 전환

- **한진관광 멤버십(KALPAK 회원) 가입 자격**

  최근 3년 내 KALPAK 상품 1회 이상 이용 고객
  KALPAK 신규예약 확정 고객(요금 완납상태)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MM) 또는 모닝캄 프리미엄(MP) 회원

- **한진관광 멤버십 〈KALPAK 회원〉 혜택**

  구매한 KALPAK 상품가의 2%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연간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 제공
  맞춤형 여행 컨설팅 제공 / 멤버십 매거진 KALPAK CLASS 정기 우송
  이용 금액에 따라 제주 생수 무료 배송 / 항공권 구매 시 수수료 면제
  KALPAK 여행상품 이용시 공항 체크인–우대서비스,
  사전 좌석배정, 수하물 우선처리 서비스 등 제공

바캉스 맞춤 여행 (괌, 오세아니아)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바캉스 맞춤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내면세상품권 제공]
괌 두짓타니(Dusit Thani), 클럽룸 자유 4일/5일

괌 지역 내 최고의 리조트로, IOC 위원장이 괌 방문 당시 묵었던 두짓타니는 30층 꼭대기 클럽라운지에서 탁 트인 오션 뷰를 굽어보며 조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 기내면세상품권(5만원권) 객실 당 1매 및 무료 사우나 1회 제공

출발 매일
일정 괌(3/4)
가격 ₩1,720,000~ / **문의** 02-726-5705, 02-726-5706

호주 블루마운틴 온앤온리,
시드니 파크하얏트 자유 7일

신비로운 푸른 숲 블루마운틴 완벽하게 즐기고 싶다면 주목할 것. 트레킹이 동반된 야생 동식물 투어와 별 관측, 승마, 산악자전거, 사륜자동차 오프로드 투어 등 다양하고 새로운 즐길 거리가 가득한 여행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출발 매일
일정 기내(1) - 시드니 - 블루마운틴(3) - 시드니(2)
가격 ₩6,914,400~ / **문의** 02-726-5706

근거리 휴식 여행 (일본, 홍콩, 동남아)

특별한 쉼을 선사하는 근거리 휴식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오타루 긴린소 료칸 자유 3일

일본 북해도 100선 문화재로 선정된 130년 전통의 최고급 료칸. 바다를 조망하며 노천온천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신치토세 공항역-오타루 칫코역 간 왕복 열차 티켓이 포함된 상품이다.

* 제주퓨어워터 또는 Mercedes-Benz 경품 제공 (선착순)

출발 매일 / **일정** 치토세 - 오타루(2) - 치토세
가격 ₩2,178,800~ / **문의** 02-726-5710

최고의 특전 [스파3회 or 골프3회] 반얀트리 랑코 라군풀빌라 자유 4일/5일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풀빌라 리조트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 투숙기간 중 반얀트리 스파 트리트먼트 데일리로 제공 (추가요금으로 골프로 변경 가능)

출발 매일 / **일정** 다낭(3)
가격 ₩1,440,800~ / **문의** 02-726-5714

[룸업그레이드/기내면세권 제공] 홍콩 포시즌스(Four Seasons) 자유 3일

세계 최초 미슐랭 3스타 중식당인 'Lung King Heen'을 포함, 세계 최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보유한 단일 호텔(총 8스타)을 즐길 수 있는 기회.

* 대한항공 기내면세상품권 객실당 1매 제공 (2019년 9월 30일 이내 출발 조건)
* 2박 시 하버뷰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제공

출발 매일 / **일정** 홍콩(2)
가격 ₩1,323,600~ / **문의** 02-726-5703

[2인 60분 스파 무료 제공] 다낭 인터컨티넨탈(Intercontinental) 자유 5일

전 객실 오션뷰로 프라이빗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다낭 최고의 리조트. 미슐랭 3스타 출신 주방장의 레스토랑과 럭셔리 스파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60분 스파 마사지 1회 제공

출발 매일 / **일정** 다낭(3) - 기내(1)
가격 ₩2,060,000~ / **문의** 02-726-5705, 5706, 5707, 5714

[2019. 8월 신규오픈] 벳푸 ANA 인터컨티넨탈 자유 3일

벳푸에 새롭게 문을 연 유일한 5성급 호텔. 레스토랑, 노천온천,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은 물론, 후쿠오카 하카타에서 벳부역까지의 열차가 포함되어 더욱 편리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출발 매일 / **일정** 후쿠오카 - 벳푸(2) - 후쿠오카
가격 ₩1,516,800~ / **문의** 02-726-5708

활기찬 체험 여행 (하와이, 인도양, 미주)

자연 속에서도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액티비티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룸업그레이드] 오아후 포시즌스(Four Seasons) 자유 5일

하와이에서 가장 활기찬 섬 오하우 최고의 호텔로, 밝고 세련된 객실에서는 광활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하면 스노클링, 승마, 헬리콥터 투어 등 이색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1단계 룸 업그레이드를 비롯, 1박당 $50의 리조트 크레딧 제공
* Mercedes-Benz 경품제공 (선착순)

출발 매일 / **일정** 오아후(4) - 기내(1)
가격 ₩2,725,400~ / **문의** 02-726-5715

[프레스티지 탑승] 유타 아만기리(Amangiri) 자유 7일

미 서부 유타주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세계 최고급 AMAN 리조트에서 투숙하는 상품이다. 이 리조트는 그랜드 캐니언의 캐니언 포인트 명소로도 각광받는 곳으로,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하고 장대한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 Mercedes-Benz 경품제공 (선착순)

출발 매주 월요일
일정 라스베이거스(1) - 캐니언 포인트(아만기리)(3) - 기내(2)
가격 ₩9,700,000~ / **문의** 02-726-5715

인도양 깊숙이 숨겨진 그 곳. 몰디브 식스센스 라무(Six Senses Lammu) 자유

리조트 내 전일 디너와 함께 '42 unique'에서 자연을 담은 홈메이드 아이스크림과 셔벗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여행. 노천극장에서의 영화 감상과 요가클래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출발 매일 / **일정** 기내(1) - 콜롬보 - 몰디브(4) - 콜롬보 - 기내(1)
가격 ₩3,436,400~ / **문의** 02-726-5706

마우이 페어몬트(Fairmont) 5일

2015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재탄생한 마우이 페어몬트는 전 객실 스위트로 운영되며, 객실 내에서 바라보는 환상적인 오션뷰를 선사한다. 총 3개의 수영장과 1개의 스파를 보유하고 있으며, 리조트 내 휴식이 가능하다.

출발 매일 / **일정** 오아후(경유) - 마우이(3) - 오아후(경유) - 기내(1)
가격 ₩3,131,200~ / **문의** 02-726-5715

대자연 만끽 여행 (중남미, 유럽)

대자연의 광활한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탑승] 페루 일주 8일 with 벨몬드 호텔

인천–로스앤젤레스–리마 구간 비즈니스석 탑승 상품으로 페루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전 일정을 글로벌 럭셔리 호텔 체인인 벨몬드에서 묵는 여정으로, 초호화 열차로 마주하는 마추픽추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 Mercedes-Benz 경품제공 (선착순)

출발 8월 26일(월), 9월 23일(월), 10월 21일(월)
일정 LA(경유) - 기내(1) - 리마(1) - 우루밤바(2) - 쿠스코(1) - 리마 - LA(경유) - 기내박(2)
가격 ₩18,500,000~ / **문의** 02-726-5715

[4인 출발] 알프스가 빚어내는 낭만, 스위스 일주 9일

스위스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상품으로, '산들의 여왕'으로 불리는 리기산, '유럽의 지붕'이라 일컫는 융프라우, 해발 4,478m 케이블카로 등정하는 마테호른까지 알프스 산맥을 따라 늘어선 그림 같은 마을과 알프스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 Mercedes-Benz 경품제공 (선착순)

출발 매주 화·목·토요일
일정 취리히(1) - 루체른/인터라켄(2) - 베른/로잔/몽트뢰(2) - 체르마트(1) - 안데르마트/로카르노/벨린쪼나/루가노(1) - 취리히 - 기내(1)
가격 ₩14,098,400~ / **문의** 02-726-5704, 5709

[2인 출발] 파리 & 런던 핵심여행 7일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파리와 런던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상품. VIP 고객을 겨냥한 우아한 인테리어의 파리 플라자 아테네 호텔, 런던의 상위계층 및 세계적 지도자들이 찾는 돌체스터의 훌륭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 Mercedes-Benz 경품제공 (선착순)

출발 매일
일정 파리(3) - 런던(2) - 기내(1) - 안데르마트/로카르노/벨린쪼나/루가노(1) - 취리히 - 기내(1)
가격 ₩8,798,400~ / **문의** 02-726-5704, 5709

ALL THAT KALPAK CASUAL

특별하고 실속 있는 나만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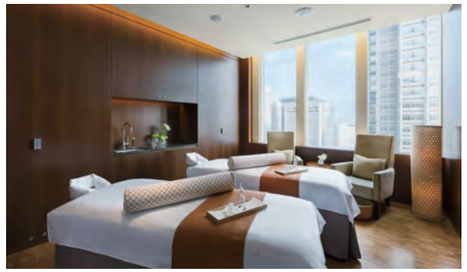
KALPAK Casual은 최고급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및 일정으로 구성된 기존의 KALPAK 상품과 달리,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운영상의 사유로 인해 차선의 콘텐츠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목적지와 숨겨진 여행지를 발굴해, 색다른 일정으로 여행이 주는 낯선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작지만 서비스를 강화한 스몰 럭셔리 여정으로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보세요.
가성비를 고려한 다양한 체험을 담은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CENIC TRAIN RIDE!

[열차 패키지] 로키 마운티니어 7박 9일

캐나다 로키를 감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캐나다를 대표하는 럭셔리 관광열차를 타고 로키의 아름다운 절경을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여행이다. KALPAK에서는 Gold Leaf를 이용, 돔으로 된 2층 좌석에서 전경 전체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열차 탑승 구간을 제외하고 전 일정이 영어 가이드로 진행된다.

출발 매주 월·목요일
일정 밴쿠버(1) - 캠룹(1) - 레이크루이스(2) - 밴프(2) - 캘거리(1) - 밴쿠버 - 기내(1)
가격 ₩6,598,400~ / **문의** 02-726-5715



도쿄 하얏트 리젠시 자유 3일

도쿄 하얏트 리젠시는 일본 도쿄의 최대 번화가 신주쿠에 자리하고 있어 도쿄 시내 주요 관광명소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호텔이다. 하네다 공항에서는 차로 약 30분 거리이며, 도쿄 도청사와 신주쿠 중앙공원 등은 도보로 5분이면 닿을 수 있어 자유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출발 매일 / **일정** 하네다 - 도쿄(2) - 하네다
가격 ₩1,068,800~ / **문의** 02-726-5710, 02-726-5708

더 수코타이 상하이(The Sukhothai Shanghai) 자유 3일

더 수코타이 상하이는 상하이 중심부에 위치한 어반 부티크 럭셔리 호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Neri&Hu and Research Office의 디자인을 거쳐 올해 4월 문을 열었다. 실내수영장과 스파,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 중이며, 아트투어, 자전거 문화투어 등 호텔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출발 매주 화·목·토요일 / **일정** 상해(2)
가격 ₩828,800~ / **문의** 02-726-5703

미슐랭 셰프와 함께하는 방콕 소 소피텔(SO Sofitel) 5일

시티뷰와 룸피니파크뷰, 인피니티 풀, 라운지 바가 인상적인 방콕 소 소피텔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챤 라크르와가 태국 5대 디자이너와 객실 인테리어를 디자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9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8명의 미슐랭 셰프를 초청해 맛의 향연을 펼친다.

* 60분 스파 마사지 1회 제공

출발 9월15일~22일 / **일정** 방콕(3) - 기내(1)
가격 ₩1,400,000~ / **문의** 02-726-5706

[8인 출발] 이야기와 전설이 있는 영국 9일

대한항공 직항편과 최고급 럭셔리 호텔을 이용, 영국의 전설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을 시작으로 낭만파 시인이자 18세기 대문호인 윌리엄 워즈워드 등 문학계 거장들의 사색의 여로를 따라간다.

출발 매주 금요일
일정 런던(2) - 스톤헨지 - 바스(1) -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 - 리블밸리(1) - 하워스 - 그래스미어/윈드미어(1) - 로슬린 - 에든버러(2) - 런던 - 기내(1)
가격 ₩9,598,400~ / **문의** 02-726-5704, 5709

[8인 출발] 낭만과 역사의 도시 프라하, 드레스덴 9일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프라하와 '독일의 베니스'로 불리는 밤베르크, 예술과 바로크의 도시인 드레스덴까지 돌아볼 수 있는 여행. 럭셔리 부티크 호텔 연합체인 Relais & Chateaux, Small Luxury Hotels 소속 호텔 등을 이용하며, 프라하 야경투어 등 특별한 일정이 낭만을 배가해준다.

출발 매주 토요일
일정 프라하(3) - 플젠/카를로비바리(1) - 밤베르크/뉘른베르크(1) - 드레스덴(2) - 프라하/기내박(1)
가격 ₩8,798,400~ / **문의** 02-726-5704, 5709

[8인 출발] 프랑스의 와인과 르와르 고성 9일

프랑스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와인과 루와르 지역의 아름다운 고성을 찾아 떠나는 낭만적인 여행. 프랑스 파리와 베르사유에서 시작되는 이 여정은 샴페인의 본고장 랭스 지역부터 '프랑스의 정원'이라 일컬어졌던 아름다운 루와르 고성 지역을 방문한다.

출발 매주 금요일
일정 베르사유/파리(3) - 에페르네/랭스(1) - 본느/디종(1) - 루아르(2) - 기내(1)
가격 ₩9,800,000~ / **문의** 02-726-5704, 5709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BOSTON

가장 미국다운 미국, 보스턴을 만나다

대한항공 미국 보스턴 주 5회 운항
델타항공과 함께 미주 290여개 도시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www.koreanair.com

미국의 초대 대통령
GEORGE WASHINGTON

50 years

쇼핑, 하늘 위에서 특별해지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쇼핑

하늘 위 기내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누리는
품격 높은 브랜드 쇼핑 – 대한항공 기내 면세쇼핑
엄선된 인기 럭셔리 브랜드와 시즌 별 다양한 구성으로
면세 쇼핑의 즐거움이 더 특별해집니다

Heart to Heart 서비스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이 계실 때, 당신이 마련한 선물과 함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기내에서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cyberskyshop.koreanair.com에서 확인하세요)

기내 면세품 사전 주문 : 080-656-4545 / cyberskyshop.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제주의 물 중에서도
귀한 물을 찾아 드시는 분들께만 찾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물_한진제주퓨어워터

주문 1544-4060
jejuwater.com
m.jejuwater.com

한정된 양만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
누구나 만나는 흔한 물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집 앞까지 특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한진
제주퓨어워터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

감사했던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50년을 향해

지난 50년,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